

大韓日報

大韓日報
대한민일보



皇城新聞

共立新聞
The United Korean
KONGLIP SINBO
FOR THE KOREANS AND BY THE KOREANS

大韓日報



The New Korea
Founded at San Francisco, Calif. Oct. 19
in Seoul, Korea, 1919
Published Once a Week by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227 No. 2 Street
San Francisco, Cal., U. S. A.
J. H. Lee, Editor & Publisher
Terms Use Year—\$2.00

제3장

운강이강년 관련 신문자료

해제

신문자료로 알아본 운강 이강년의 의병항쟁

신문자료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황성신문

공립신보

신한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報

報
FOR T



朝鮮日報

朝鮮日報

신문자료로 알아본 윤강 이강년의 의병항쟁

강윤정(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책에 수록된 신문 자료는 모두 97건이다, 『대한매일신보』(한글판·국한문판) 57건, 『황성신문』 21건, 『공립신보』 14건, 『신한민보』 1건, 『동아일보』 3건과 『조선일보』 1건이다.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중·후기의병 시기의 의병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하였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9월부터 별도의 고정란(지방정형·지방소식 등)을 두어 의병활동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신문도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하였고, 『황성신문』은 『대한매일신보』와 중복되지 않은 기사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이들 자료는 이강년 부대의 전투지역과 참가 의병 규모뿐만 아니라, 연합을 이루었던 인물과 부대에 대한 정보, 체포와 순국 과정, 순국 당일의 주변 인물의 모습이 단편적이지만 담겨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윤강 이강년에 관한 신문기사는 1907년 9월 18자 『대한매일신보』에 처음 보인다. 그 뒤 1908년 10월 13일 ‘종로감옥서’에서 순국하였다는 기사가 1908년 11월 11일자 『공립신보』에 게재되었다. 이를 끝으로 그의 의병항쟁과 순국과 관련된 기사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의 휘하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의 항쟁은 계속되었다. 그 때문에 신문기사에서 이강년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1919년 10월 2일까지 이어졌다.

해방 뒤 그의 행적을 기리는 기사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지역 인물들의 행적을 집중 조명하면서 수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이 책에서는 몇몇 기사만 수록하였다. 『이강년의사순의비』 제막식(『동아일보』 1962년 6월 4일자), 서울에서의 동상 건립(『동아일보』 1964년 5월 16일자), 속오작대도(東伍作隊圖) 발견(『조선일보』(1988년 4월 21일자), 1995년 국가보훈처 『10월의 독립운동가』 선정(『동아일보』(1995년 10월 3일자) 관련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1. 1907년 다시 擧義한 윤강 이강년

1896년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이강년은 1907년 제천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이는 후기의병 시기에 해당된다. 이강년의 후기의병과 관련된 신문기사는 1907년 9월 18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에 처음 등장한다. 1907년 9월 14일 赤城에 주둔한 이강년 부대가 5시 무렵 일본 마쓰노(松野) 대위의 기습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石各과 道苗로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이튿날인 1907년 9월 19자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물러났던 이강년부대 의병 50여 명이 9월 14일 저녁 石城에서 니시하라(西原) 중위가 이끄는 일본군과 교전하여, 일본 측에 사상자 20여 명을 내며 타격을 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시작으로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에서는 이강년 부대의 전투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강년은 거병(擧兵) 초기에는 주로 문경 적성을 중심으로 활약하며 전투를 치렀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8일자, 9월 19일자, 9월 29일자). 이후 1907년 10월 5일자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강년은 주로 永春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두 기사에서는 1907년 9월 25일 永春에서 이강년이 이끄는 의병 3백여 명이 일본군과 접전했다는 보도가 실렸다. 이후, 이강년은 永春에 근거지를 두고 인근 군현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3일자, 12월 4일자, 12월 17일자; 『황성신문』 1907년 10월 5일자, 12월 4일자, 1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보도된 순흥·단양전투 또한 그가 永春 방면에서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1908년 1월 보도부터는 지평·가평 의병과의 연합(『공립신보』 1908년 1월 8일자), 양주지역에 모인 의병과의 연합 도모(『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23일자; 『공립신보』 1908년 2월 19일자), 평창 전투(『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9일자), 포천 영평(永平) 전투(『황성신문』 1908년 4월 3일자) 등이 보도되었다. 이는 13도창의진에 합류하기 위한 복상으로 짐작된다. 이어 1908년 4월 18일자 『황성신문』에서는 충주방면에서 접전을 치르고 제천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는 이강년이 다시 남진하는 모습이다. 이후 4월 21일 이강년은 이인영 등과 함께 전국에 통문을 발하여 다시 기병을 재촉하는 모습도 실려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30일자; 『공립신보』 1908년 1월 8일)

1908년 6월 4일에 이르러 이강년은 봉화에서 전투를 치렀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13일자) 이후 봉화·영주 일대에서 전투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16일자, 6월

20일자; 『황성신문』 1908년 6월 20일자) 전투를 이어가던 이강년은 1908년 7월 2일 제천의 북쪽에서 의병 70여 명을 이끌고 싸우다가 체포되었다. (『황성신문』 1908년 7월 5일자) 1907년 다시 거의 한 후 약 2년에 걸친 항쟁이었다.

2. 옥중 순국과 유훈, 그를 계승한 사람들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공립신보』는 운강 이강년 체포 뒤 귀추에 주목하며,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체포된 이강년은 경성헌병대 호송, 경성지방재판소 압송, 심리와 판결, 이강년의 상고 포기, 처교(處絞) 등에 관한 내용이 차례대로 보도되었다.

눈여겨볼 내용은 신문과정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절연한 모습이다. 이는 1908년 10월 2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쾌활장부」라는 머리 아래 실렸다. “장부가 세상에 났다가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백성의 원통함을 씻지 못하였으니 살아 무엇 하며, 죽는 것이 마땅한지라. 너희가 방송치 아니할 진대 당장에 죽일지라도 내가 겁낼 바 없노라”라는 내용이다. 1908년 10월 15일자 『대한매일신보』(국한문·한글판)에는 이강년의 아들 이승재의 상고 시도가 무산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과 처교 당일의 항변 모습이 보도되었다. 특히 항변 모습은 『이씨통곡』이라는 머리글 아래 자세히 보도하였다.

“의병장 이강년씨를 (중략) 처교하던 날에 이씨의 아들 이승재씨가 감옥서 문 앞에 와서 그 처분을 기다리다가 처교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감옥서 문을 발로 차며 통곡하여 가라대 이놈 왜적 관리아 나의 부친을 무슨 죄로 처교하느뇨. 너희 왜추가 우리 황상을 헐박하고 우리 땅을 빼앗음으로 나의 부친이 충성을 다하여 의병을 일으켜 너희 오랑캐를 죽여 위로 나라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 백성의 원망을 신원코져 함이거늘 오늘날 어찌 감히 이러한 혹형을 하느뇨 하며 그 광경이 심히 위험한지라 그 서에서 경찰서에 통지하여 하룻밤을 가두었다가 방송하고 이씨의 부친에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게 하였다더라”

이를 통해 순국 당일 가족들의 모습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처교 당일 관리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보도도 있다. “그의 처형을 집행하던 관리가 비분강개하여 모자

를 벗어 찢어버리고 스스로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3일자; 『공립신보』 1908년 11월 11일자) 1908년 11월 6일자 『대한매일신보』(국한문·한글판)에는 이강년의 『유서』 실리기도 했다.

운장 이강년의 유서는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던 휘하의 의병들은 그의 뜻을 이어 나갔다. 그와 관련된 기사는 1909년 2월 4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시작으로 1919년 10월 2일까지 여러 신문에서 보도되었다. 이강년 부대에서 종사관으로 활약하던 김규향이 이강년 사후 군자금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피체된 내용(『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5일자), 이강년 사후 아들의 의병 재기 도모(『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3일자), 이강년 휘하 남은 군사들의 활동이 1919년 10월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한민보』 1919년 10월 2일자)

운강이강년 관련 신문자료 현황(보도 일자순)

	신문명	발행일	비고
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9월 18일	각지소식
2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9월 19일	지방소식
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9월 29일	지방정형
4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0월 5일	지방소식
5	황성신문	1907년 10월 5일	지방소식한통 地方消息一通
6	공립신보	1907년 10월 25일	의병소식
7	황성신문	1907년 10월 31일	잡보 雜報 - 내지익직 乃智溺職
8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9일	지방소식
9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15일	지방정형
10	황성신문	1907년 11월 15일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一通
1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20일	지방정형
12	황성신문	1907년 11월 20일	봉화소화 奉化燒火
13	황성신문	1907년 11월 20일	순흥소화 順興燒火
14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21일	지방정형
15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28일	지방소식
16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7년 12월 3일	지방정형
17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4일	지방정형
18	황성신문	1907년 12월 4일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一通
19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2월 17일	지방소식
20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7일	지방정형
2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2월 18일	지방소식
2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9일	지방정형
2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2월 21일	지방소식
24	황성신문	1907년 12월 21일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一通
25	황성신문	1907년 12월 26일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一通
26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월 5일	리씨여리씨여
27	공립신보	1908년 1월 8일	의병소식

	신문명	발행일	비고
28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월 23일	의병합술
29	공립신보	1908년 2월 5일	렬렬~ 리씨
3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2월 13일	사자복생 死者復生, 양가피해 兩家被害
31	공립신보	1908년 2월 19일	양쪽의병합동
32	공립신보	1908년 3월 11일	위천하불고불고가
33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3월 19일	평창의병
34	황성신문	1908년 4월 3일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35	황성신문	1908년 4월 8일	필유충돌 必有衝突
36	황성신문	1908년 4월 18일	지방소식 1통 地方消息 一通
37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4월 30일	기병통문
38	공립신보	1908년 5월 27일	의병장격문
39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6월 13일	지방정형
40	황성신문	1908년 6월 13일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4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6월 16일	지방소식 地方消息
42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6월 16일	지방정형
4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6월 20일	지방소식
44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6월 20일	지방정형
45	황성신문	1908년 6월 20일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46	황성신문	1908년 7월 5일	이괴생금 李魁生擒
47	황성신문	1908년 7월 8일	호송경대 護送京隊
48	황성신문	1908년 7월 9일	지방정형
49	공립신보	1908년 7월 14일	피보연속
5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7월 17일	의장심문 義將訊問
5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7월 21일	의장심문 義將訊問
52	공립신보	1908년 8월 5일	의병장 사로잡혀
5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8월 7일	의장압교 義將押交
54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1일	의장유배 義將流配
55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9월 1일	의병대장유배
56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2일	의장공사누문 義將供辭漏聞

	신문명	발행일	비고
57	공립신보	1908년 9월 2일	이씨압송
58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22일	이강년씨의 판결 李康年氏의 判決
59	황성신문	1908년 9월 22일	이강년선고정일 李康年宣告定日
6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23일	처교선고 處絞宣告
61	황성신문	1908년 9월 23일	이강년의 처교 李康年의 處絞
62	공립신보	1908년 9월 30일	의병장불복, 의병대장 유배
6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1일	의장불원상고 義將不願上告
64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1일	상고불원
65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2일	의장공사렬렬 義將供辭烈烈
66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2일	쾌활장부
67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14일	의장귀천 義將歸天
68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14일	의장처교
69	황성신문	1908년 10월 14일	교형집행 絞刑執行, 판결처교 判決處絞
70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15일	의장의 상고퇴각 義將의 上告退却
71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15일	부의자효 父義子孝
72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15일	상고환퇴
73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5일	이씨통곡
74	공립신보	1908년 10월 21일	의병처교선고
75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1월 3일	압솔자퇴 押率自退
76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3일	의기있는사람
77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1월 6일	의장유서 義將遺書
78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1월 6일	잡보 - 의병장 이강년씨 유서
79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1월 6일	의병장 이강년씨의 종제를 영결한 글
80	공립신보	1908년 11월 11일	의장사형, 의병전사
81	공립신보	1908년 12월 9일	의리있는 압퇴
82	공립신보	1908년 12월 30일	송구년 送舊年
83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9년 2월 4일	지방소식 地方消息
84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2월 4일	지방정형
85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2월 26일	의장피착

	신문명	발행일	비고
86	황성신문	1909년 2월 26일	폭고체포 暴魁逮捕
87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4월 25일	의병장 피착
88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5월 23일	이씨계적
89	황성신문	1909년 6월 19일	이씨피포 李氏被捕
90	大韓每日申報(국한문)	1909년 7월 23일	蚊虻驅除 前號 續
91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9년 7월 23일	시사평론
92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9년 7월 28일	의병총대장이인영씨의 약사 義兵總大將李麟榮氏의 畧史
93	신한민보	1919년 10월 2일	이강년휘하 남은 군사
94	동아일보	1962년 6월 4일	이강년의사의 순의비제막식 李康季 義士의 殉義碑除幕式
95	동아일보	1964년 5월 16일	역사를 빛낸 민족의 사표
96	조선일보	1988년 4월 21일	한말 의병편제義兵編制 밝힌 자료발견
97	동아일보	1995년 10월 3일	보훈처「10월의 독립운동가」 李康季선생 선정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9월 18일자

각지소식

▲ 十四日 午後五時에 이강년李康季이 率한 義兵 百名이 聞慶東方赤城에서 夕食하는대 日本松野大尉가 來襲하여 銃劍으로 突擊하여 義兵의 死傷이 多하다하고 義兵은 石各과 道苗로 逃走하였다하고

▲ 十四日 午後 五時에 李康季이
가 率한 義兵 百名이 聞慶東方赤
城에서 夕食하는대 日本松野大
尉가 來襲하여 銃劍으로 突擊하
야 義兵의 死傷이 多하다하고 義
兵은 石各과 道苗로 逃走하였다
하고

신문자료 탈초·번역 :

황용건(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9월 19일자

지방소식

▲ 14일 夕에 문경군 동로북면 石城에서 西原중위에 率한 一隊는 이강년李康年에 一派 약 50명 의병을 조우 교전하다가 日兵 일병 20여명이 死傷하고 예천방면에 약 200명 의병이 留在한다는 보고가 有하며 日兵이 偵察하는데 安同久保中 兩보조원이 예천군에서 의병에게 포위한바 되어 도주하다가 추격을 受하여 전사하였고

▲ 拾四日夕에 문경군 동로북면 石城에서 西原中尉에 率한 一隊는 李康年에 一派約五十名義兵을 遭遇交戰하다가 日兵二拾餘名이 死傷하고 醴泉方面에 約二百名義兵이 留在한다 報告가 有하리 日兵이 偵探하노대 安同久保中 兩補助員이 醴泉郡에서 義兵의 包圍를 受하야 逃走하다가 追擊을 受하야 戰死하얏고

지방정형

▲ 경북 안동 駐隊副尉 백남규는 군대해산 조칙에 대하여 不平之懷를 起하여 其時 대장 김구현이 萬壹之慮를 예방할 수단으로 소총과 擊銃을 取際한 고심을 불구하고 병졸을 선동할 뿐아니라 대장에게 탄약 공급함을 迫請하여 本月 11일경에 예천읍 來할 際에 안동 상인을 逢하여 言하기를 我는 병졸을 率하고 의병을 擊할터이니 대구로 向하여 海山병을 率할 經營이라 하였고 又言하기를 今日에 至於此境은 金正尉와 안동 一進會長 송병진之所爲라 此等を 살해한다하고 本月 10일에 문경 積성동에서 日補佐官 一行을 擊退하고 이강년李康年 一團과 合勢하였다하고

▲慶北安東駐隊副尉白南圭난 軍隊解散 詔勅에對하여 不平之懷를 起하여 其時隊長金龜鉉이 萬壹之慮를 預防할 手段으로 小銃과 擊銃을 取際할 苦心을 不拘하고 兵卒을 煽動할 뿐 아니라 隊長의 川彈藥供給함을 迫請하여 本月 拾一月 頃에 醴泉邑 來할 際에 安東商人을 逢하여 言하기를 我는 兵卒을 率하고 義兵을 擊할터이니 大邱로 向하여 解散兵을 率할 經營이라 하였고 又言하기를 今日에 至於此境은 金正尉와 安東一進會長宋秉銓之所爲라 此等を 殺害한다 하므로 本月 十日에 開慶赤城洞에서 日補佐官 一行을 擊退하고 李康年 一團과 合勢하였다 하고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0월 5일자

지방소식

▲ 去 25일경에 永春에서 의병 약 3백명이 일본 西岡中隊와 충돌하여 1시간을 교전하다가 퇴각하였는데 의병은 이강년李康年의 지휘로 集團하고 안동진위대 해산병이 其中에 混雜했다하고

▲ 去二十五日頃에 永春에서 義兵約三百名이 日本西岡中隊와 衝突하여 一時間을 交戰하다가 退却한 것은 議義兵은 李康年의 指揮로 集團하고 安東鎮衛隊의 解散兵이 其中에 混雜했다하고

황성신문

1907년 10월 5일자

지방소식한통 地方消息 一通

△ 9월 25일 저녁에 일본군 西岡중대가 永春에서 義徒 약 300명과 충돌하여 교전 한 시간 후에 귀난케 하였는데 該義徒는 이강년李康季이 지휘하는 집단이나 안동진위대의 해산병도 此中에 在하다하고

● 地方消息 一通

△ 九月二十五日夕에 日軍 西岡中隊가 永春에서 義徒 畧二百名과 衝突하여 交戰 一時間後에 潰亂케 하였는데 該義徒는 李康季의 指揮하는 集團이나 安東鎭衛隊의 解散兵도 此中에 在하다하고

공립신보

1907년 10월 25일자

의병소식

▲ 경상북도 안동군 진위대 부위 백남규씨는 군대해산하라 신조칙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어 대장 김귀현의 방어함을 불계하고 병졸을 선동할뿐 아니라 탄약을 대장에게 억지로 청하여가지고 본월 11일에 예천군으로 오다가 안동군 장사사람을 만나 말하기를 나는 병졸을 거느리고 의병을 모집할터인데 대구로 향하여 해산병을 거느릴 경영이라하고 또 말하기를 오늘날이 이렇게 됨은 김정위와 안동 일진회장 송병전의 소위라 이놈들은 살해한다하며 본월 10일에 문경군 적성동에서 일보좌관의 일행을 퇴격하고 이강년의 군사와 합세하였다더라

▲ 경상북도 안동군 진위대 부위 백남규씨는 군대해산하라 신조칙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어 방어함을 불계하고 병졸을 선동할뿐 아니라 탄약을 대장에게 억지로 청하여가지고 본월 11일에 예천군으로 오다가 안동군 장사사람을 만나 말하기를 나는 병졸을 거느리고 의병을 모집할터인데 대구로 향하여 해산병을 거느릴 경영이라하고 또 말하기를 오늘날이 이렇게 됨은 김정위와 안동 일진회장 송병전의 소위라 이놈들은 살해한다하며 본월 10일에 문경군 적성동에서 일보좌관의 일행을 퇴격하고 이강년의 군사와의 합세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7년 10월 31일자

잡보 雜報 - 내지익직 乃智溺職

● 강원도 선유사 홍우석씨가 내부에 보고하기를 本月 20일에 위원 권태준이가 원주군으로부터 영월 등지로 경찰차 發往하다가 주천등지에서 義徒에게 被捉하였는데 來頭死生을 終末可知오 義徒魁首 이강년李康季은 自慶南來者 稱以學者하고 심상희는 忠北來者인데 稱以叅領하고 率黨 450명하고 出沒村閭하여 勤討民財에 鄙說悖行은 不可 一一枚報이며 且 本使로 論之하면 猥蒙宣諭之命以來로 萬無實效하니 卽爲奏免하야 論溺職之責하라 하였더라.

雜 報

● 乃智溺職 江原道宣諭使洪祐哲氏가 內部에 報告하기를 本月二十日에 委員權泰駿이 原州郡으로 出沒村閭하여 勤討民財에 鄙說悖行은 不可 一一枚報이며 且 本使로 論之하면 猥蒙宣諭之命以來로 萬無實效하니 卽爲奏免하야 論溺職之責하라 하였더라

지방소식

▲ 新林과 成南里와 黃化 折水亭店과 林峙 酒泉등지에서 평창으로 通하는 도로 양측 산간부락에 이강년李康年과 정병화 윤기영 등의 率한 義兵內에 1200명이 주둔하고 去 12일 전으로부터 冬服을 製하는데 모피를 蒐集하고 軍糧을 秋糶하며 牛馬를 徵發하며 부근 屯민은 同情을 寄하여 畊 田에 貨物을 積聚한다하고

▲新林과 成南里와 黃化와 折水
亭店과 林峙 酒泉等地에서 平昌
으로 通는 道路 兩側 山間 部落
에 李康年과 鄭榮化 尹基永 등의
率한 義兵內에 一千二百名이 駐
屯하고 去 拾二日前으로부터 冬
服을 製는 爲에 毛皮를 蒐集하고
軍糧을 堆積하고 牛馬를 徵發하고
며 附近 村民은 同情을 寄하여 遠
近 部落에 貨物을 積聚한다하고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15일자

지방정형

▲ 10일 오전 8시에 신돌석에 率한 의병 300여명이 봉화군을 襲하여 官有가옥에 放火하였는데 榮川郡수비대에서 警官과 急行하였고 또 이강년李康季의 率한 의병 약 200명과 신돌석의 부하와 合勢하여 永春방면으로부터 順興군을 습격하여 官有家屋及 民가 180호를 燒棄하고 更히 永春으로 回軍하였는데 榮川守備隊가 追往하나 의병의 氣勢가 益益猖獗함으로 봉화 順興 풍기등 군이 不穩하였다하고

▲十日午前八時に申돌石에率
한義兵三百餘名이奉化郡을襲
한가官有家屋에放火하였는데
榮川郡守備隊에서警官과急行
하였고또李康季의率한義兵約
二百兵과申돌石의部下와合勢
한가永春方面으로부터順興郡
을襲擊한가官有家屋及民家一
百八十戶를燒棄하고更히永春
으로回軍하였는데榮川守備隊
가追往하나義兵의氣勢가益々
猖獗함으로奉化順興豊基等郡
이不穩하였다고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 義徒首領 이명상이 目下 충주에 체류하는 선유사 이순하씨에게 對하여 致書 하되 폭도교정의 사명을 帶하고 선유사가 과연 國君의 命인지 又惑統監의 命인지 흉적을 殘滅하고 國難을 報함이 國民의 義이요 又臣民의 忠義心에 因하이어늘 감히 讎敵의 矯制에 의하여 선유사라 稱함이 甚히 乖悖하다하였다더라

△ 春川電을 據한즉 本月 5일 토벌차 춘천에서 發行한 日本守備及 警察隊가 흥천 지평 춘천 각군에 집합한 義徒를 潰走四散하고 義徒의 巢窟家屋 66호와 糧米저장소를 燒燬하였다하고

△ 本月 14일에 日本步兵 第12여단장이 보고하여 曰榮川分遣所의 通報를 據한즉 本月 10일에 義徒 300여명이 봉화를 襲하여 官有家屋에 衝火하여 該村이 沒燒한지라 榮川守備隊에 경찰관이 急行하여 義徒에게 多大한 손해를 被케하고 高지령 以北으로 격퇴하였고 又 11일에 義徒 이강년李康季 등 200여명과 신돌석 등 300여명이 榮川방면에서 순흥을 襲하여 官有建築物及 民家 180호를 소각하고 永春郡으로 返遣하였는데 榮川수비대장이 추격중이요 義徒는 益益猖獗하여 봉화, 순흥, 풍기 부근이 不穩하다더라

● 地方消息 一通

△ 義徒首領李明相이 目下 忠州에 滯留하는 宣諭使李舜夏氏에게 對하여 致書호되 暴徒矯正의 使命을 帶호야 諭使가 果然 國君의 命인지 又或 統監의 命인지 凶賊을 殘滅호고 國讎를 報함이 國民의 意호 又臣民의 忠義心에 因호야 어늘 濫히 讎敵의 矯制에 依호야 宣諭使라 稱호야 甚히 乖悖호다호았더라

△ 春川電을 據호 則本月 5日 討伐次 春川에서 發行호 日本守備隊及 警察隊가 洪川 砥平 春川各郡에 集호義徒를 潰走四散호고 義徒의 巢窟家屋 六十六戶의 糧米貯藏所를 燒燬호았 다호고

△ 本月 14日에 日本步兵 第12旅團 長이 報告호야 曰榮川分遣所의 通報를 據호 本月 10日에 義徒 三百餘名이 奉化을 襲호야 官有家屋에 衝火호야 該村이 沒燒호지라 榮川守備隊에 警察官이 急行호야 義徒에게 多大호 損害를 被케호고 古直嶺 以北으로 擊退호았호고 又 11日에 義徒李康季等 二百名과 申돌석等 三百餘名이 永川方面에서 順興을 襲호야 官有建築物及 民家 百八十戶를 燒燬호고 永春郡으로 返還호았호되 榮川守備隊長이 追擊中이 호 義徒는 益益猖獗호야 奉化, 順興, 豐基附近이 不穩호다호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20일자

지방정형

▲ 봉화의 주둔한 의병이 日警部와 약 2시간을 교전하다가 의병이 고치령을 躡하여 태백산 중으로 退去하였는데 日兵이 踞追하는 도중에서 이강년李康季의 率한 의병을 遭遇하여 교전하였다고

▲ 奉化의 駐屯 義兵이 日警部
와 約二時 間을 交戰하다가 義兵
이 古嶺嶺을 躡하여 太白山中
으로 退去하였는데 日兵이 踞追
하는 道中에서 李康季의 率한 義兵
을 遭遇하여 交戰을 하였다고

황성신문

1907년 11월 20일자

봉화소화 奉化燒火

● 大邱警務署 警視 永谷氏가 內部에 電報하되 本月 10일 上午 8시에 강원도 義徒大將 郭鶴基*의 所率한 300여명이 봉화군을 습격하여 郡衙와 分派所와 主事 書記廳及 기타 民家 전부를 燒火함으로 巡査 巡檢을 率하고 守備隊와 急行 該地하여 該徒黨을 격과하였는데 其主力은 삼척군界 태백산으로 도주라 하였더라

●●●●●
奉化燒火 大邱警務署警視永谷
氏가 內部에 電報하되 本月 10日 上午
八時에 江原道 義徒大將 郭鶴基의 所
率한 三百餘名이 奉化郡을 襲擊하야
郡衙와 分派所와 主事 書記廳及其他
民家 全部를 燒火함으로 巡査 巡檢을
率하고 守備隊와 急行 該地하야 該徒
黨을 擊破하얏노되 其主力은 三陟郡
界 太白山으로 逃走라 하얏더라

* 邊鶴基의 오기

황성신문

1907년 11월 20일자

순흥소화 順興燒火

● 本月 11일 慶北義徒大將 이강년李康年의 所率한 200여명과 신돌석의 所率한 300여명이 永春郡으로부터 순흥군을 습격하여 各公廳及 民家 180호를 燒火하고 퇴각하였는데 該徒情形은 去益猖獗하다 하였더라

順興燒火 本月十一日慶北義徒
大將李康年の所率한二百餘名과申
돌석의所率한二百餘名이永春郡으
로부터順興郡을襲擊하여各公廳及
民家一百八十戶를燒火하고退却하
았는디該徒情形은去益猖獗하다하
았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1월 21일자

지방정형

- ▲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의 率한 의병의 형세는 益益猖獗하다하고
- ▲ 가평군 先登山과 영평군 白雲山을 의병이 근거지로 삼고 駐在한 의병과 數爻가 4,5천 명에 달하였는데 或 數10명 或 數백명씩 作隊하여 영평 포천 양주 가평군으로 橫行하며 京人田畝의 추수한 穀을 執留하며 徒黨을 募集한다하고

▲義兵將李康季의 率한 義兵의 形勢는 益益猖獗하다하고
▲加平郡 先登山과 永平郡 白雲山을 義兵이 根據地로 삼고 駐在한 義兵의 數爻가 四五千名에 達하얏는데 或 數十名 或 數百名 式 作隊하여 永平 抱川 楊州 加平 列郡으로 橫行하여 京人 田畝의 秋收 穀을 執留하여 徒黨을 募集한다하고

지방소식

▲ 평안도 의병은 황해도義將 박기섭과 연합하고 황해도 의병은 長湍 義將 김수민과 相連하고 김수민은 철원義將 前參尉 김규식과 連通하고 김규식은 積城 麻田 義將 허위와 相通하고 허위는 砥平 加平等지에 이인영과 通涉하고 이인영은 제천 영남등지 이강년李康季과 원주등지로 민금호 連接되어 互相義通謨한다하고

▲ 地 方 消 息 ▼

▲ 平 安 道 義 兵 是 黃 海 道 義 將 朴
 基 燮 與 聯 絡 矣 並 黃 海 道 義 兵 是
 長 湍 義 將 金 秀 敏 與 相 連 矣 並 金
 秀 敏 是 鐵 原 義 將 前 參 尉 金 奎 植
 與 連 通 矣 並 金 奎 植 是 積 城 麻 田
 義 將 許 偉 與 相 通 矣 並 許 偉 是 砥
 平 加 平 等 地 李 麟 榮 與 通 涉 矣
 並 李 麟 榮 是 堤 川 嶺 等 地 李 康
 年 與 原 州 等 地 李 肯 鎬 連 接 矣
 並 互 相 擬 議 通 謀 矣 矣 矣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7년 12월 3일자

지방정형

▲ 거월 26일에 영춘군 근처에서 이강년이 거느린 의병 500명이 일본군대와 1시간이나 접전하였다고

지방정형

▲거월 이십륙일에 영춘군 근처에서 이강년의 거느린 의병 오백명이 일본군대와 한 시간이나 접전하였다고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7년 12월 4일자

지방정형

▲ 거월 22일에 단양군 각귀리에서 의병이 일병과 2시간이나 접전하다가 청풍군 지방으로 퇴각하였는데 군기는 다 신식총을 가졌다하고

▲ 26일에 영춘군 이강년이 거느린 의병의 허실을 일병이 정탐하고 밤에 습격하매 의병이 응전치 아니하고 동군 서방면으로 퇴각하였다하며

지방정형

▲ 거월 이십이일에 단양군 각귀리에서 의병이 일병과 두시간이나 접전하다가 청풍군 지방으로 퇴각하였는데 군기는 다 신식총을 가졌다하고

▲ 이십륙일에 영춘군 리강년에 거느린 의병의 허실을 일병이 정탐하고 밤에 습격하매 의병이 응전치 아니하고 동군 서방면으로 퇴각하였다하며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 단양의 日兵이 去月 22일에 각기리에 在한 義徒에게 向하여 총검으로 돌격한 후 교전 약 2시간반에 義徒가 四散退却하였다하고

△ 日兵이 去月 26일 永春부근에서 義徒 이강년李康年 등 약 500명과 交戰하여 北方으로 격퇴하였다하고

△ 日兵이 去月 23일부터 義徒 邊學台*등을 추격하여 26일에 이강년李康年이 永春방면에 在함을 知하고 該處로 向하다가 義徒가 부근 촌락에 潛匿함을 知하고 義徒 약 40명을 습격한즉 義徒가 사망으로 潰亂하였다하고

● 地方消息 一通

△ 丹陽의 日兵이 去月 二十二日에 角基里에 在한 義徒에게 向하여 銃劍으로 突擊한後 交戰略 二時間半에 義徒가 四散退却하였다하고

△ 日兵이 去月 二十六日 永春附近에서 義徒 李康年等 略 五百名과 交戰하여 北方으로 擊退하였다하고

△ 日兵이 去月 廿三日부터 義徒 邊鶴台等을 追躡하여 廿六日에 李康年이 永春方面에 在함을 知하고 該處로 向하다가 義徒가 其附近村落에 潛匿함을 知하고 義徒 略 四十名을 襲擊한則 義徒가 四方으로 潰亂하였다하고

* 邊鶴基의 오기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2월 17일자

지방소식

▲ 충주부근에 의병은 日兵과 교전하다가 퇴각하고 尙今 이강년李康年의 2명의 率한 六七百명의 의병은 永春郡을 근거지로 삼고 各處로 橫行하며 徒黨을 모집한다하고

忠州附近에 義兵은 日兵과 交戰하다 退却하고 尙今 李康年外 二名의 率한 六七百名의 義兵은 永春郡을 根據地로 삼고 各處로 橫行하며 徒黨을 募集한다하고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7년 12월 17일자

지방정형

▲ 충주군 근처에 의병이 일병과 접전하다가 퇴거하였는데 지금까지 이강년의 7,8백명 의병이 영춘군을 근거지로 삼고 각처로 횡행하며 도당을 모집한다하고

충주군 근처에 의병이 일병과 접전하다가 퇴거하였는데 지금까지 이강년의 칠팔백명 의병이 영춘군을 근거지로 삼고 각처로 횡행하며 도당을 모집한다하고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7년 12월 18일자

지방소식

▲ 거10일 풍기군 利峴에서 의병 20명이 순검과 교전하다가 퇴각하였는데 이강년李康年의率한 의병 二三千名이 同郡 부근에서 橫行한다하고

▲去拾日豊基郡利峴에서義兵
廿名이巡檢과交戰을다가退去
去았는데李康年の率한義兵二
三千名이同郡附近에서橫行
다하고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7년 12월 19일자

지방정형

▲ 의병장 이명상이 거느린 의병 200여명이 충주 덕산면 성내로 근거지를 삼고 문경군 명전리에 모였는데 이강년과 연락하여 군용 금액을 수취한다함으로 일병이 듣고 7일 오후 12시에 공격한즉 의병이 밤으로 설립도 지방으로 퇴진하였다 하고

지방정형

▲의병장 이명상의 거느린 의병 이백여명이 충주 덕산면 성내로 근거지를 삼고 문경군 명전리에 모였는데 이강년과 연락하여 군용 금액을 수취한다함으로 일병이 듣고 칠일 오후 십이시에 공격한즉 의병이 밤으로 설립도 지방으로 퇴진하였다 하고

지방소식

▲ 9일 단양군 부근에서 이명상의 率한 의병 약 30명이 경찰대와 접전하다가 퇴각하고 또 이강년李康季의 부하 6000명이 同地에서 該 경찰대로 교전하다가 퇴거하였는데 이강년李康季 부하 소모장의 率한 의병 20명이 突出하여 교전하였다고

▲九日丹陽郡附近에서李明相
의率한義兵約三拾名이警察의
와接戰하다가退却하고또李康
年의部下六千名이同地에서該
警察의로交戰하다가退却하였
는데李康年部下召募將의率한
義兵二十名이突出하여交戰하
였다고

황성신문

1907년 12월 21일자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 去月 19일 오후2시 忠州巡檢隊長의 전보를 據한즉 16일에 日兵이 永春地에서 義魁 이강년李康年이 率한 약 80명의 義徒를 포위 공격하여 召募將及 先鋒大將 등 14명을 死케 하고 이강년李康年은 脚部를 부상하여 도주하였고 關棗右軍將이하 3명은 生擒하였다더라

● 地方消息 一通

△ 去月 十九日 午後二時 忠州 巡檢隊長의 電報를 據한 據 拾六日 에 日兵이 永春地에서 義魁 李康年이 率한 義徒 八拾名의 義徒를 包圍 攻擊한 召募將及 先鋒大將等 十四名을 死케 하고 李康年은 脚部를 負傷하여 逃走한 關棗右軍將以下 三名은 生擒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7년 12월 26일자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 忠州巡檢隊長 朴警視의 전보를 據한즉 本月 16일에 永春郡에서 義徒 이강년李康季 등을 포위공격하여 약 3시간에 이강년李康季은 부상 도주하고 其餘 義徒는 四散潰走하였는데 此戰鬪에 순검 1명이 左足에 중상을 被하고 義兵召募大將 이중봉 召募將 원철상 등 11명을 生擒하고 발견한 義徒의 屍體가 拾四라하였고

△ 本月 19일에 봉낭사鳳囊寺*에서 일병이 의도 50명과 교전하였는데 義徒魁首이하 27명이 致斃하고 3명이 生擒되고 又倉村부근에서 義徒 250명과 교전 5시간 후에 銅坪방면으로 격퇴하였는데 義徒의 시체가 80여요 又횡성군 둔내면에서 義徒 150명과 교전하여 珍富방면으로 격퇴하고 又 本月 20일에 영월군에서 의도 300명을 습격 潰亂케하였다하고

● 地方消息一通

△ 忠州巡檢隊長 朴警視의 電報을 據
 今本月十六日 永春郡에서 義徒
 李康年 등을 包圍 攻擊 三時間
 李康年은 負傷 逃走 其餘 義徒
 四散潰走 矣 此戰鬪에 巡檢
 一名이 左足에 重傷을 被 義兵 召
 募大將 李重鳳 召募將 元哲常 등 拾一
 名을 生擒 矣 發見한 義徒의 屍體가
 拾四라 矣

△ 本月十九日 鳳囊寺에서 日兵이
 義徒 五十名과 交戰 矣 義徒 魁
 首 以下 二拾七名이 致斃 矣 三名이
 生擒 矣 又 倉村附近에서 義徒 二百
 五拾名과 交戰 五時間後에 銅坪方面
 으로 擊退 矣 義徒의 屍體가 八
 十餘 矣 又 橫城郡 屯內面에서 義徒 百
 五十名과 交戰 矣 珍富方面으로 擊
 退 矣 又 本月 廿日 寧越郡에서 義
 徒 三百名을 襲擊 潰亂케 矣

* 鳳囊寺라는 절은 찾을 수 없음.

리씨여리씨여

의병장 이강년씨는 원래 을미년에 창의하던 사람인데 이번 7협약이 성립된 후에 또 산중에서 일어나서 창의하는 기를 세우고 동지자를 모집한지가 지금 여러 달이라 수십차 접전에 항상 군사 보다 앞서서 탄환을 무릅쓰는 고로 쫓던 것은 총알에 파쇄하여 양태만 남고 몸에도 상한곳이 무수하며 사졸과 같이 고생하라 하여 극한이라도 홀옷을 입더니 따라다니던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가 차운 것을 견디지 못하여 군사의 솜옷을 빌려 입었더니 해씨가 대노하여 군령으로 형벌을 하였고 지나는 곳마다 추호도 침범함이 없는 고로 그 위인을 일본인도 칭찬한다더라

● 리씨여리씨여 의병장리강
 년씨는 을미년 창
 의하던 사람인데 이번 칠
 협약이 성립된후에 또 산
 중에서 일어나서 창의하는
 기를 세우고 동지자를 모
 집한지가 지금 여러달이라
 수십차접전에 항상 군사보
 다 앞서서 탄환을 무릅쓰는
 고로 쫓던 것은 총알에 파
 쇠한곳이 양태만 남고 몸
 도 상한곳이 무수하며 사
 졸과같이 고생하라 하여 극
 한이라도 홀옷을 입더니
 따라다니던 자기의 사랑
 하는 사위가 차운 것을 견
 디지 못하여 군사의 솜옷
 을 빌려 입었더니 해씨가
 대노하여 군령으로 형벌
 하였고 지나는 곳마다 추
 호도 침범함이 없는 고로
 그 위인을 일본인도 칭
 찬한다더라

공립신보

1908년 1월 8일자

의병소식

△ 내지 소식을 들은즉 각처 의병이 호상 연락하여 처사가주밀한데 평안도 의병은 황해도 의병장 박기섭씨와 연락하고 황해도의병은 장단의병장 김수민씨와 상연하고 장단의 병은 철원의병장 전참위 김규식씨와 연락하고 철원의병은 적성 마전의병장 허위씨와 연동하고 적성 마전의병은 지평의병장 이인영씨와 통섭하고 지평 가평 등지 의병은 제천 등지 영동의병장 이강년씨와 연합하고 원주 등지 의병장 민공호씨와 연접되어 서로 의론을 통하여 전국 의병이 한 단체가 되었으며 군율이 정숙하다더라.

△ 단양군에는 의병 수천 명이 주둔하였는데 창의장 이명상씨 오중군장 김규림씨 오좌군장 민영필씨 오우군장 이영승씨 오서기 이치명씨 오참모는 이진하씨인데 양총을 구비하고 규율이 정숙하여 민재는 추호불범하며 격렬한 격사를 下三道 인민과 천하 각국에 비전하여 조리가 정정방방하다더라

義兵消息

△ 내지 소식을 들은즉 각처 의병이 호상 연락하여 처사가 주밀한데 평안도의병은 황해도의병장 박기섭씨와 연락하고 황해도의병은 장단의병장 김수민씨와 상연하고 장단의 병은 철원의병장 전참위 김규식씨와 연락하고 철원의병은 적성 마전의병장 허위씨와 연동하고 적성 마전의병은 지평의병장 이인영씨와 통섭하고 지평 가평 등지 의병은 제천 등지 영동의병장 이강년씨와 연합하고 원주 등지 의병장 민공호씨와 연접되어 서로 의론을 통하여 전국 의병이 한 단체가 되었으며 군율이 정숙하다더라

의병합술

양주 왕방산에 둔치한 의병이 굉장하다는 말은 이왕 기재하였거니와 해 의병의 대장은 이장년씨인데 강원도 의병장 민공호씨도 장차 응종하야 해지로 합술한다더라

●의병합술 양주 왕방산에
둔치한 의병이 굉장하다는
말은 이왕 기재하였거니와
해의병의 대장은 이장년씨
인터 강원도 의병장 민공
호씨도 장차 응종하야 해
지로 합술한다더라

공립신보

1908년 2월 5일자

렬렬~ 리씨

의병대장 이강년씨는 원래 을미년 의병장인데 금번 7조약이 된 후에 다시 의로운 기를 들고 동지들을 모집하여 수십 번 전쟁을 지내었으나 백절불굴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데 싸움할 때는 항상 자기가 사졸의 앞을 서 탄환을 무릅쓰는 고로 쓴 것은 총알자국에 떨어져 양자만 남았으며 그 몸에도 탄환을 맞아 상처가 무수하고 사졸과 고생을 같이 하여 극한한 동절이라도 항상 홑옷을 입으며 수증하는 그 사위가 추운 것을 견디지 못하여 사졸의 소음 옷을 빌려 입혀드리니 씨가 대노하여 군법으로 처벌하였으며 횡단하여 지나는 곳에 추호가 소범이 입는 고로 일병들도 그 위인을 척척 칭찬한다더라

● 렬~ 리씨 동년

의병대장 이강년씨는 을미년 의병장이던 금번 7조약이 된 후에 다시 의로운 기를 들고 동지들을 모집하여 수십 번 전쟁을 지내었으나 백절불굴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데 싸움할 때는 항상 자기가 사졸의 앞을 서 탄환을 무릅쓰는 고로 쓴 것은 총알자국에 떨어져 양자만 남았으며 그 몸에도 탄환을 맞아 상처가 무수하고 사졸과 고생을 같이 하여 극한한 동절이라도 항상 홑옷을 입으며 수증하는 그 사위가 추운 것을 견디지 못하여 사졸의 소음 옷을 빌려 입혀드리니 씨가 대노하여 군법으로 처벌하였으며 횡단하여 지나는 곳에 추호가 소범이 입는 고로 일병들도 그 위인을 척척 칭찬한다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2월 13일자

사자복생 死者復生

의병장 허위씨는 과주등지에서 飲藥自處하였다하고 각신문에 게재되었더니 巷說을 聞한즉 죽기는 姑舍하고 병졸 4,5천명을 領率하고 加平방면에 屯聚하여 技藝를 練習한다더라

양가피해 兩家被害

의병장 유인석 이강년李康年 兩氏의 家를 日兵 一齊 屠戮을 하였다는 傳說이 有하다더라

● 死者復生 義兵將許 위 시는
坡州等地에서 飲藥自處하였다
고 各新聞에 掲載되었다니 巷說
을 聞한즉 죽기는 姑舍하고 兵卒
四五千名을 領率하고 加平方面
에 屯聚하여 技藝를 練習한다
라

● 兩家被害 義兵將柳麟錫李
康年 兩氏의 家를 日兵이 一齊 屠
戮하였다는 傳說이 有하다
라

공립신보

1908년 2월 19일자

양쪽의병합동

양주군 왕방산하에 의병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의병장이 강년씨가 강원도 의병장 민공호씨와 장차 합동한다더라

● 양의합동 양주군왕방산하에
의병이만히모였는데그석의병장
리강년씨가강원도의병장민공호
씨와장차합동한다더라

공립신보

1908년 3월 11일자

위천하불고불고가

의병대장 유인석 이강년 양씨의 집을 일병이 도륙하였다는 풍설이 있더라

▲ 위천하불고불고가 의병대장유린
석리강년양씨의집을일병이도륙
하였다는풍설이있더라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3월 19일자

평창의병

본월 9일에 평창군 벌창마을에서 일병이 이강년과 정병화의 부하를 치매 의병이 퇴각하였더라

● 평창의병 본월구일에 평
창군 벌창마을에서 일병이
이강년과 정병화의 부하를
치매 의병이 퇴각하였더라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 단양군수비대 보고를 據한즉 該隊下士이하7명이 去月 24일에 該郡道基東方 고지에서 義徒 70명과 1시30분을 開戰공격하였다하고

△ 영주수비대 上等兵이하 7명이 去月 24일에 韓沙店北方地에서 義徒와 交戰하였다하고

△ 함창수비대 下士이하 5명이 去月 25일 松面場 東南1里되는 地에서 留宿하는 義徒 수명을 襲擊하여 포탄 기타 雜品을 收取하였다하고

△ 義魁 이강년李康季의 부하 460명이 去月 24일 豐基郡 土里面 白洞에 침입하였다하고

● 地方消息 一通

△ 丹陽郡守備隊報告를 據하거 該隊 下士以下七名이 去月二十四日 該郡道基東方高地에서 義徒七十名과 一時三十分을 開戰攻擊하였다 하고

△ 榮川守備隊 上等兵以下七名이 去月二十四日 韓沙店北方地에서 義徒와 交戰하였다 하고

△ 咸昌守備隊 下士以下五名이 去月二十五日 松面場東南一里되는 地에서 留宿하는 義徒十名을 襲擊하여 砲彈其他雜品을 收取하였다 하고

△ 義魁李康年의 部下四百六十名이 去月二十四日 豐基郡 土里面 白洞에 侵入하였다 하고

황성신문

1908년 4월 8일자

필유충돌 必有衝突

昨冬以來로 이강년李康年의 領率한 義兵 100餘名이 永平 東面과 加平 道城 等地에서 逗遛하다가 本月 3日에 永平 嘉溪洞에 在함을 聞하고 日兵 10餘名이 4日 曉에 襲擊하여 半日을 相戰하다가 衆寡不敵하여 日兵이 退却한 後에 義兵은 加平 道城으로 前往하였는데 近地에 派住 日兵 5,60名이 更爲集合하여 躡尾追去하였다니 日間에 衝突이 又有 할듯 하다더라

必有衝突 昨冬以來로李康年의
領率한義兵百餘名이永平東面과加
平道城等地에서逗遛하다가本月三
일에永平嘉溪洞에在함을聞하고日
兵十餘名이四日曉에襲擊하여半日
을相戰하다가衆寡不敵하여日兵이
退却한後에義兵은加平道城으로前
往하였다近地에派住日兵五六十
名이更爲集合하여躡尾追去하였다
니日間에衝突이又有할듯하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4월 18일자

지방소식 1통 地方消息 一通

△ 충주분견대에서 수색한 결과로 義魁 이강년 李康年의 부하 80명과 충돌하여 제천지방으로 發向하고 충주군 엄정면내 倉地에 義徒 30명이 來襲하여 일진회원 1명을 捉去하였다하고

● 地方消息 一通

△ 忠州分遣隊에서 搜索한 結果로 義魁 李康年의 部下 八十名과 衝突하여 提川地方으로 發向하고 忠州郡嚴政面內倉地에 義徒三十名이 來襲하여 一進會員一名을 捉去하였다하고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4월 30일자

기병통문

의병장 허위씨와 이강년씨와 이인영씨와 유인석씨와 박정빈씨가本月 21일에 13도에 통문하고 속히 기병하기로 하였다더라

● 기병통문 의병장 허위씨와 이강년씨와 이인영씨와 유인석씨와 박정빈씨가本月 21일에 13도에 통문하고 속히 기병하기로 하였다더라

공립신보

1908년 5월 27일자

의병장격문

의병대장 허위 이강년 이인영 유인석 박정빈 제씨가 13도에 통문을 발하여 본월 21일에 맞도록 속히 군사들을 일으키라고 하였다더라

● 의병장격문 의병대장 허위
 리강년 리인영 류인석 박정
 빈 제씨가 13도에 통문을 발하
 아 본월 21일에 맞도록 속히 군
 사들을 일으키라고 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6월 13일자

지방정형

▲ 본월 4일에 봉화군 동방 6리되는 땅에서 이강년의 거느린 의병 700여명이 안동군 일수비병 소위의 거느린 토벌대와 접전하였다하고

지방정형

▲ 본월 4일에 봉화군 동방
 6리되는 땅에서 이강년의 거
 느린 의병 칠백여명이 안
 동군 일수비병 소위의 거느린
 토벌대와 접전하였다하고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本月 4일에 안동수비대 日兵이 봉화 東方에서 義魁 이강년李康年 등 700명과 교전하였다 하고

△거월 25일에 원주동남방 신호분견대가 該地부근에서 義徒와 교전하였다하고

△본월 1일에 강릉수비대 日兵이 삼척 서남방에서 義徒 50명과 교전하였다하고

△본월 9일에 이천수비대 日兵이 該郡 서남방에서 義徒 20명과 교전하였다하고

● 地方消息 一通

△本月四日 安東守備隊 日兵이 奉化 東方에서 義魁 李康年等 七百名과 交戰하였다 하고

△去月二十五日 原州 東南方 神戶 分遣隊가 該地附近에서 義徒와 交戰하였다 하고

△本月一日에 江陵 守備隊 日兵이 三陟 西南方에서 義徒 五十名과 交戰하였다 하고

△本月九日 利川 守備隊 日兵이 該郡 西南方에서 義徒 二十名과 交戰하였다 하고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6월 16일자

지방소식 地方消息

▲本月 6일 봉화군에서 이강년李康季이率한 의병이
榮川 日守備토벌대와 교전하였다하고

▲地方消息▼
 ▲本月六日奉化郡의서李康年
 이率한義兵이榮川日守備討伐
 隊와交戰하였다하고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6월 16일자

지방정형

▲本月 6일 봉화군에서 이강년이 거느린 의병이
榮川郡 수비대와 접전하였다하고

지방정형
 ▲본월륙일 봉화군에서 리
 강년에 거느린 의병이 영
 천군 수비대의 접전하였다
 하고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6월 20일자

지방소식

- ▲本月 14일 대전역에서 의병 60여명이 문경군 일수비병과 교전하였다하고
- ▲本月 7일 榮川郡에서 이강년李康年의 幕將 朴某의 率한 의병 150명이 醴泉郡及榮川郡 守備隊及 討伐隊와 교전하였다하고

▲本月십이日 太田驛의 서義兵
六십餘이 聞慶郡의 守備兵과 交
戰하였다하고
▲本月七日 榮川郡의 서李康年
의 幕將 朴某의 率한 義兵 壹百五
拾名이 醴 郡及榮川郡의 守備
隊及 討伐隊와 交戰하였다하고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6월 20일자

지방정형

- ▲ 14일의 의병 60명이 대전등지에서 문경군 수비대와 접전하였다하고
- ▲本月 7일에 이강년의 부하 박모의 거느린 의병 150명이 榮川郡에서 예천군 일 수비대와 접전하였다하고

소십스일의 의병육십명이래
던등디의셔 문경군 슈비터
와 접전호엿다호고
▲本月칠월에 리강년의 부
하 박모의 거느린 의병일
백오십명이 영천군에서 예
천군 영슈비터와 접전호엿
다호고

황성신문

1908년 6월 20일자

지방소식 한통 地方消息 一通

△本月 7일에 醴泉及 榮川守備隊 日兵이 川坪里에서 義徒 이강년李康年 部長 朴某 등 150명과 교전하였다하고

●地方消息 一通
△本月 七日에 醴泉及 榮川守備隊 日兵이 川坪里에서 義徒 李康年 部長 朴某等 百五十名과 交戰호엿다호고

황성신문

1908년 7월 5일자

이괴생금 李魁生擒

堤川守備隊 日兵이 本月 2일에 청풍 북방에서 匪徒 70명과
交戰하여 魁首 이강년李康季을 生擒하였다더라

李魁生擒 堤川守備隊日兵이本月二일에清風北方에서匪徒七十名과交戰하여魁首李康季을生擒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7월 8일자

호송경대 護送京隊

청풍부근에서 被捉한 暴魁 이강년李康季은 本月 5일 충북에서 경
성헌병대로 該送하였다더라

護送京隊 清風附近에서被捉한暴魁李康季은本月五日忠北에서京城憲兵隊로該送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7월 9일자

지방정형

△ 거월 20일부터本月 1일까지 예천수비대가 단양부근에서 폭도를 토벌소탕하여 11명을 살해하였다더라

△本月 3일 忠州守備隊 구역내에서 暴魁 이강년李康年의 部將 1명을 生擒하였다하고

△本月 4일 일병이 청풍 북방에서 폭도 1명을 살해하였다하고

△去月二十日부터本月一日까지醴泉守備隊가丹陽附近에서暴徒를討伐掃蕩하여十一名을殺하였다더라

△本月三日에忠州守備隊區域内에서暴魁李康年の部將一名을生擒하였다하고

△本月四日예천兵이淸風北方에서暴徒一名을殺하였다하고

공립신보

1908년 7월 14일자

피보연속

안동수비대 일병이 이강년씨 휘하에 있는 의병과 거월 4일에 접전되야 의병 40명이 전사하였다더라

●피보연속 안동수비대 일병이 이강년씨 휘하에잇는의병과거월四일에접전이되야의병四十명이 전사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7월 17일자

의장신문 義將訊問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씨가 被捉되얏는데 去월요일에 入城
하야 日헌병사령부에 押囚하고 現今 訊問中이라더라

●義將訊問 義兵將李康年氏
가被捉되얏는데去月曜日에入
城하야日憲兵司令部에押囚하
고現今訊問中이라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7월 21일자

의장신문 義將訊問

의병대장으로 被捉되야 監獄署에 在囚한 이강년李康
季씨를 2昨日에 平理院에서 押致하여 壹次 審問을 하
였는데 文簿與印 괴를 收去하였다더라

●義將訊問 義兵大將으로被
捉되야監獄署에在囚호李康年
氏를二昨日에平理院에서押致
하야壹次審問을하였더니文簿與
印괴를收去하였다더라

공립신보

1908년 8월 5일자

의병장 사로잡혀

제천군 수비대 일병이 청풍군 북방에서 의병과 접전하여 의병장 이강년씨를 생금하였다더라

● 의병장 사로잡혀
제천군수비대일병이청풍군북방
에서의병과접전하여의병장리강
년씨를생금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8월 7일자

의장압교 義將押交

日司令部에서 被囚하였던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씨를 日昨에 경성지방재판소로 押交하였다더라

● 義將押交 日司令部에被囚
하였던義兵將李康季氏를日昨
에京城地方裁判所로押交하였
다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1일자

의장유배 義將流配

監獄署에 滯囚한 의병장 허위 이강년李康年 兩氏는 流配된다는 說이 有하더라

○義將流配 監獄署에 滯囚한
義兵將許위李康年兩氏는 流配
된다는 說이 有하더라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9월 1일자

의병대장유배

감옥서에 체수한 의병대장 허위 이강년 양씨는 유배가
된다더라

●의병대장류비 감옥서에 체
수한 의병대장 허위 리강
년 양씨는 류비가 된다더라

의장공사누문 義將供辭漏聞

대심원에서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씨를 訊問하는데 李氏의 供辭를 漏聞한즉 의병을 刱起한 本意가 5적을 先斬하고 都下 人民을 救濟코져함이로다 한되 裁判官이 또 問曰 허위씨를 知乎아 한즉 李氏曰 甲午以前仕宦人은 吾知之어나와 甲午以後仕宦人은 吾不知하니 허위씨는 甲午以後出仕人이라 吾何能知之리오 하고 強硬히 不服하였다더라

●義將供辭漏聞 大審院에서
 義兵將李康年氏를訊問호는대
 李氏의供辭를漏聞호는義兵을
 刱起호는本意가五賊先斬호는
 都下人民을救濟코즈호는로다
 호는되裁判官이또問曰許위씨를
 知乎아호는李氏曰甲午以前仕
 宦人은吾知之어나와甲午以後
 仕宦人은吾不知호는나許위氏는
 甲午以後出仕人이라吾何能知
 之리오호는호는強硬히不服호는
 하였다

공립신보

1908년 9월 2일자

이씨압송

일본사령부에 피송하였던 의병장 이강년씨를 일작에 경성지방재판소로 압송하였다더라

● 리씨압슈 일본사령부에 피슈
향앗든 의병장 리강년씨를 일작에
경성지방재판소로 압슈히다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22일자

이강년씨의 판결 李康季氏의 判決

內亂犯으로 檢擧되야 경성공소원에서 審理하는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씨의 판결은 明日로 決定하였다더라

●李康年氏의 判決 內亂犯으
로 檢擧되야 京城控訴院의 審
理하는 義兵將 李康季氏의 判決
은 明日로 決定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9월 22일자

이강년선고정일 李康季宣告定日

내란죄로 被囚한 이강년李康季은 公訴院에서 심리중이더니
판결 선고의 期日은 明日로 決定하였다더라

●李康年 宣告定日 內亂罪로 被囚
한 李康年은 拱訴院에서 審理中이
니 判決宣告의 期日은 明日로 決定
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9월 23일자

처교선고 處絞宣告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씨를 處絞로 宣告하였다더라

●處絞宣告 義兵將李康年氏
를處絞로宣告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9월 23일자

이강년의 처교 李康季의 處絞

이강년李康季의 내란죄 피고사건은 작일 오전 11시에 경성공소원에서 處絞로 선고하였더라

●李康季의處絞
被告事件은昨日午前十一時에京城
控訴에서處絞로宣告하였다

공립신보

1908년 9월 30일자

의병장불복

대심원에서 의병장 이강년씨를 심문하는데 그 공초한 말을 들은즉 의병을 일으킨 본뜻은 오적을 먼저 베이고 인민을 구제코져 함이라 하였다더라

의병대장 유배

감옥서에 재수한 의병대장 허위 이강년 양씨는 유배가 된 다더라

● 의병장불복
대심원에서 의병장 이강년씨를 심문하는데 그 공초한 말을 들은즉 의병을 일으킨 본뜻은 오적을 먼저 베이고 인민을 구제코져 함이라 하였다더라

● 의병대장유배
감옥서에 재수한 의병대장 허위 이강년 양씨는 유배가 되었다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0월 1일자

의장불원상고 義將不願上告

義兵將 이강년李康季氏가 대심원에 上告한다는 說이 有하더니 該氏가 上告 節次를 行하지 아니한다하며 且死刑執行에 就하야는 法部大臣이 上奏 認可함을 要할터이라더라

○義將不願上告 義兵將李康
年氏가大審院에上告한다는說
이有하더니該氏가上告節次를
行지아니할다하며且死刑執行
에就하야는法部大臣이上
奏可함을要할터이라

대한매일신보(한글판)

1908년 10월 1일자

상고불원

의병장 이강년씨는 대심원에 상고한다는 말이 있더니 해씨가 상고절차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며 처고집행하는 사에 대하여 범부대신이 상주한다더라

● 상고불원 의병장 이강년
씨는 대심원에 상고호는
말이 있더니 해씨가 상고절
차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며 처
고집행하는 사에 대하여 범
부대신이 상주한다더라

義將供辭畧

義兵大將이강년李康季氏 부하에 隨從호든 李明夏氏가 監獄署에 被囚호얏는대 日前에 大審院에서 押上호야 日人檢事가 出席取調호즉 李氏의 所供이 我是 太祖高皇帝陛下拾七世孫으로 遭此時局호야 忠憤을 不堪호고 汝等倭雛를 壹并誅滅호計劃으로 投身倡義호얏더니 不幸히 今日에 汝에게 強捉함을 被하얏스니 痛憤不已호노라 호미 檢事曰 汝既倡義호야 我兵幾名을 討誅호얏나뇨 호즉 李氏曰 汝等을 逢劫殺之호야 上以報國讐하고 下以伸民冤호즈 하얏더니 所殺호 倭雛가 纔過三百餘名이라 호거늘 檢事曰 汝果屈服호면 既爲放送하라 호얏더니 至此不服호니 固當誅之라 호거늘 李氏曰 男兒가 既爲出世호야 國讐을 未報하고 民冤을 未伸호얏스니 生何爲哉며 死亦何恨가 汝欲不爲放送호 터면 當場誅之라도 我不畏겁하노라 호얏다더라

열렬한 의병장 진술

의병 대장 이강년씨 아래에서 따르던 이명하씨가 감옥서에 구금되었는데, 일전에 대심원에서 압송 해 올려 일본인 검사가 출석하여 취조하니 이씨의 진술 한 바가,

“나는 태조 고향제 폐하의 17세손으로 이러한 시국을 당해 충심과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 왜놈들을 한 번에 주멸 할 계획으로 한 몸 바쳐 창의 하였더니, 불행이 오늘 너희에게 억지로 붙들림을 당하였으니 통분함이 그 지없다.”

라고 하자 검사가 말하길, “너는 이미 창의하여서 우리 병사 몇 명을 쳐서 죽였는가?”라고 하니 곧 이씨는,

“너희들을 맞닥뜨려 그들을 죽여서 위로는 나라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백

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했더니, 죽인 왜놈은 겨우 300여 명이다.”
 라고 하니 검사가 말하길, “네가 굴복 한다면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굴복하
 지 않으니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자 이씨는,

“남아가 세상에 태어나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
 지 못했으니 살아도 어찌 할 수 있겠으며 죽어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네가
 풀어주지 않고 싶다면 당장 나를 죽이더라도 두렵지 않다.”

라고 하였더라.

◎義將供辭烈々

義兵大將李康于兵部下時隨從
 李明夏氏가監獄에 被囚
 上言曰日人檢事가出席取調
 奇李氏의 所供이 我是 太祖高
 皇帝陛下 拾七世孫으로 遣此時
 局을 아 忠憤을 不堪으로 汝等 倭
 難을 尙 并 誅 滅을 計 劃으로 投身
 倡義方았어니 不幸히 汝에 汝
 에 刑 强 擬 辱을 被하았스니 痛憤
 不已호노라 檢事曰 汝 既 倡
 義호아 我 兵 幾 名을 討 誅호았나
 노 曰 奇 李 氏 曰 汝 等 達 達 殺 之
 言 上 以 鞫 國 書 하 曰 下 以 伸 民
 冤 可 不 하 矣 汝 所 殺 倭 徒 雜 者
 纔 過 二 百 餘 名 이라 奇 曰 檢 事
 曰 汝 果 屈 服호면 卽 爲 放 送 하 라
 호 矣 曰 汝 不 服 必 固 當 誅
 之 然 奇 曰 李 曰 男 兒 既 爲
 出 世호야 國 讐호 未 報호 且 民 冤
 未 伸호야 矣 스니 生 何 爲 哉 曰 死
 亦 何 恨 乎 汝 欲 不 爲 放 送호면 曰
 汝 當 誅 之 曰 我 不 提 督 하 노
 라 호 矣 曰 奇 曰 汝 不 提 督 하 노

쾌활장부

의병대장 이강년씨의 부하 이명하씨가 감옥서에 피수하였다가 일전에 대심원에서 일인
 검사가 출석하여 문초하는데 이씨가 공초하여 가로되 내가 본래 태조고황폐하의 17세손
 으로 이러한 시국을 당하여 분함을 이기지 못함으로 너희 왜놈을 모두 죽일 계획으로 의
 병에 투입하였더니 불행이 오늘날 너에게 잡힘이 되었으니 통탄함이 비할데 없노라 하자
 검사 가로되 네가 의병에 들었을 때에 우리 군사를 몇이나 죽였느냐 한즉 이씨 가로되 너
 희 왜놈들은 만나는 데로 죽여 위로 나라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 백성의 원통함을 설치코
 저 하였더니 너희 왜놈을 죽인바가 다만 삼백여명이로다 하거늘 검사가 가로되 네가 굴
 복하였으면 곧 방송하려하였더니 네가 굳이 불복하니 마땅히 사형에 처하리라 하거늘 이
 씨 가로되 장부가 세상에 났다가 나라 원수를 갚지 못하고 백성의 원통함을 신설치 못하
 였으니 살아 무엇하며 죽는 것이 마땅한지라 너희가 방송치 아니할 진대 당장에 죽일지
 라도 내가 겁낼바 없노라 하였더라

○ 쾌 활 장 부 ○ 의 병 대 장 리 강
 년 씨 의 부 하 이 명 하 씨 가 감
 옥 서 에 피 수 하 였 다 가 일 전
 에 대 심 원 에서 일 인 검 사 가
 출 석 하 야 문 초 하 는 데 리 씨
 가 공 초 하 야 말 으 니 내 가 본 래
 태 조 고 황 폐 하 의 17 세 손
 으 로 아 러 한 시 국 을 당 하 야
 분 함 을 이 기 지 못 함 으 로 너
 희 왜 놈 들 을 모 두 죽 일 계 획 으
 로 의 병 에 투 입 하 였 다 니 불
 행 이 오 늘 날 너 에 게 잡 힘 이
 되 었 으 니 통 탄 함 이 비 할 데
 없 노 라 하 자 검 사 가 가로 되
 네 가 의 병 에 들 었 을 때 에
 우 리 군 사 를 몇 이 나 죽 이 었
 는 냐 한 즉 이 씨 가 가로 되 너
 희 왜 놈 들 은 만 나 는 데 로 죽
 여 위 로 나 라 의 원 수 를 갚 고
 아 래 로 백 성 의 원 통 함 을 설
 치 코 저 하 였 다 니 너 희 왜
 놈 들 을 죽 이 는 바 가 단 만 삼
 백 여 명 이 로 다 하 거 늘 검 사
 가 가로 되 네 가 굴 복 하 였
 으 면 곧 방 송 하 려 하 였 다 니
 네 가 굳 이 불 복 하 니 마 당
 히 사 형 에 처 하 리 라 하 거 늘
 이 씨 가 가로 되 장 부 가 세
 상 에 났 다 가 나 라 원 수 를
 갚 지 못 하 고 백 성 의 원 통
 함 을 신 설 치 못 하 였 으 니
 사 라 무 엇 며 죽 는 것 이 마
 당 한 지 라 너 희 가 방 송 치 아
 니 할 진 대 당 장 에 죽 일 지
 라 도 내 가 겁 낼 바 없 노 라
 하 였 다 러

의장귀천 義將歸天

向日 경성공소원에서 絞刑의 判決을 受한 의병장 이강년李康季씨는 昨日 오전 10시에 京城監獄署에서 絞刑을 執行하였는데 14분간의 絶息하였다더라

○義將歸天 向日京城
控訴院의서 絞刑의 判決을 受호
義兵將李康年氏는 昨日午前
時의 京城監獄署의서 絞刑을 執
行호았노대 십四分間의 絶息
하였다더라

의장처교

향일 경성공소원에서 교형에 처한 의병장 이강년씨는 작일 오전 10시에 경성감옥서에서 처교하였는데 14분후에야 기절하였다더라

●의장처교 향일 경성 공
소원에서 교형에 처한 의
병장 이강년씨는 작일 오전
십시에 경성 감옥서에서 처
교하였는데 십분후에야 기
절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10월 14일자

교형집행 絞刑執行

이강년李康年은 작일 오전 10시에 監獄署內에서 絞刑을 執行하였다.

판결처교 判決處絞

허위는 京城控訴院에서 絞刑의 宣告를 受한 후에 大審院으로 上告하였더니 該院에서 上告 棄却의 判決을 受하였는데 近近히 絞刑을 執行한다더라.

絞刑執行 李康年은昨日午前十
時에監獄署內에서絞刑을執行하였
더라
● 判決處絞 許爲는京城控訴院에
서絞刑의宣告를受한後에大審院으
로上告하였다니該院에서上告棄却
의判決을受하였다는近近히絞刑을
執行한다더라

의장의 상고퇴각 義將의 上告退却

의병장 허위씨를 向日 공소원에서 교형으로 선고하였더니 該氏의 子侄이 該宣告에 불복하고 更히 대심원에 상고하였는데 該院에서 其상고장을 退却하였고 이강년李康季씨와 如히 日間 絞刑으로 집행한다더라

◎義將의 上告退却
義兵將 허위씨를向日控訴院에
서絞刑으로宣告하였더니該氏
의子侄이該宣告에不服을更
히大審院에上告하였더니該院
에서其上告狀을退却하였고李
康年氏와如히日間絞刑으로執
行한다더라

부의자효 父義子孝

義兵將 이강년李康季氏를 絞刑에 執行한 事는 昨報에 已揭어니와 伊時에 海氏의 令男 李承宰씨가 監獄署 門前에 往하여 如何한 處分을 苦待하다가 此事를 聞知하고 該署 大門을 足덕 痛哭하며 疾聲大呼曰 倭賊官吏아 吾의 父親을 何故處絞乎아 汝等 倭雛 가 脅我 皇上하며 奪我韓土함으로 吾의 父親이 白日을 貫하는 忠誠으로 舉此義旗하야 誅汝島夷 하야 上報國警하고 下伸民冤하고저 하였거늘 乃至今日에 何敢行此酷刑乎아하며 景況이 甚危한故로 該署에서 警察署로 通知하고 壹夜를 押囚하고 翌日에 放送하였는데 海氏 父親 屍身을 覓去安葬하라 하였다더라

◎父義子孝 義兵將李

康年天身絞刑에 執行한 事는 昨
 報에 已揭어니와 伊時에 海氏의
 令男 李勝任氏가 監獄署 門前에
 往來이 如何處分을 苦待하
 가 此事를 聞知하고 該署 大門을
 足덕 痛哭하며 疾聲大呼曰 倭賊
 官吏아 吾의 父親을 何故處絞乎
 아 汝等 倭雛 가 脅我 皇上하며
 奪我韓土함으로 吾의 父親이 白
 日을 貫하는 忠誠으로 舉此義旗
 하야 誅汝島夷하야 上報國警하
 고 下伸民冤하고저 하였거늘 乃
 至今日에 何敢行此酷刑乎아하
 며 景況이 甚危한故로 該署에서
 警察署로 通知하고 壹夜를 押囚
 하고 翌日에 放送하였는데 海氏
 父親 屍身을 覓去安葬하라 하였
 다더라

상고환퇴

의병장 허위씨를 향일에 경성공소원에서 교형으로 선고하였더니 해씨의 자질이 그 선고에 불복하고 다시 대심원에 상고하였는데 해원에서 그 상고를 퇴하고 이강년씨와 같이 일간에 교형을 실행한다더라

● 상고환퇴 의병장 허위씨
불향일에 경성공소원에서
교형으로 선고하였더니
해씨의 자질이 그 상고에 불
복하고 다시 대심원에 상고
하였더니 해원에서 그 상고
를 퇴하고 이강년씨와 같이
일간에 교형을 실행한다더라

이씨통곡

의병장 이강년씨를 처교하였다는 말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그 처교하던 날에 이씨의 아들 이승재씨가 감옥서 문 앞에 와서 그 처분을 기다리다가 처교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감옥서 문을 발로 차며 통곡하여 가라대 이놈 왜적 관리야 나의 부친을 무슨죄로 처교하느냐 너희 왜추가 우리 황상을 헐박하고 우리 땅을 빼앗음으로 나의 부친이 충성을 다하여 의병을 일으켜 너희 오랑케를 죽여 위로 나라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 백성의 원망을 신원코져 함이거늘 오늘날 어찌 감히 이러한 혹형을 하느냐 하며 그 광경이 심히 위험한지라 그 서에서 경찰서에 통지하여 하룻밤을 가두었다가 방송하고 이씨의 부친에 시체를 찾다가 장사를 지내게 하였다더라

● 리○○○ 의병장 리강년 씨를 처교하였다는 말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그 처교하던날에 리씨의 아들 리승재씨가 감옥서 문앞해와서 그 처분을 기다리다가 처교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감옥서문을 발로차며 통곡하여 갈은디 이놈 왜적관리야 나의 부친을 무슨죄로 처교하느냐 너희 왜추가 우리의 원수를 헐박하고 우리 땅을 빼앗음으로 나의 부친이 충성을 다하여 너희 오랑케를 죽여 위로 나라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 백성의 원망을 신원코저 함이거늘 오늘날 어찌 감히 이러한 혹형을 하느냐 하며 그 광경이 심히 위험한지라 그 서에서 경찰서에 통지하여 하룻밤을 가두었다가 방송하고 리씨의 부친에 시체를 찾다가 장사를 지내게 하였다더라

공립신보

1908년 10월 21일자

의병처교선고

의병장 이강년씨는 처교하기로 선고하였다더라

● 의장 처교 선고 의병장 리강년
씨 논 처교하기로 선고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8년 11월 3일자

압솔자퇴 押率自退

監獄署 押率 2인이 의병장 이강년李康年 허위 兩氏의
處絞함을 見하고 悲憤을 不勝하여 其所署 帽子를 裂
破하고 退去하였다더라

● 押率自退 監獄署押率二人
이義兵將李康年許위兩氏의處
絞함을見호고悲憤을不勝호야
其所着帽子를裂破호고退去호
았다더라

의기있는사람

감옥서 앞에 두사람의 의병장 이강년씨와 허위씨의 처교함을 보고 분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썼던 모자를 찢고 자퇴하였다더라

● 의기있는사람 감옥서압퇴
두사람이 의병장 이강년씨
와 허위씨의 처교함을보고
분울함을 이기지못하여 썼
던 모자를 찢고 자퇴하였다
더라

◎ 義將遺書

義兵將이강년李康季씨의 烈烈한 忠魂이 抱恨歸天함은 本報에 已光이라 衆所共知어니와 其臨終時에 監獄官의게 紙筆을 請求하야 其令郎李承宰及該從 弟兩시의게 遺書함이 如左하더라

訣長子承宰書大畧

汝父平生 素抱血衷 願死於王事 今焉遂意 亦何恨爾 其勿至警懼 收斂精神 率乃弟 日待獄門外 我死後三日內凶葬 而故山路遠 不可輿殯返葬 則此意祥乞于宗家 請借壹壙於大君墓所局內 似好 汝父德薄 所執未伸 雖有力 衣衾棺槨 義不當稱制 況汝昆季 室家靡依 則倉猝旅館 尺布單衣 何可辦得 只以在囚時 所着衣件 埋瘞先山下 吾所甘心 幸勿致憾 吾苦心復保 拾有三載竟死 復讐之事 殊甚憤恨 而勢有強弱 義無屈伸 君子所謂死有榮時生則辱者 此也

俯仰無愧 汝勿過哀 率弟入峽 耕鑿에過 善爲教養 廷秀 以繼家聲 是乃繼述之道 勉之勉之 毋忝乃父 此外瑣事 不願煩提也 戊申六月四日被虜時 賦五律壹絕 丸子太無情 斗傷止不行 若中心腹裏 母辱到瑤京 在監獄 賦二絕 喪車南渡漢 兒子不勝悲 雖然名尚在 乃家近古稀 成敗何須說 從容始踐言 丹心培養驗 感泣聖朝恩 是年六月拾日 縛在日憲兵所 作二絕 五拾年來判死心 臨難豈有苟求心 盟師再出終難復 地下猶餘冒劔心 遲遲夏日見人稀 猾奴隨言覓括機 大義尊攘身以守 堂堂就死莫云悲

訣從弟書大畧

從兄德薄 所執未伸 終焉被擒 今將受死 若以俗情 爲之戚矣 在吾心坦坦然如歸 人生百年 孰無壹死 與其紛挐 往來於利欲之場 身後無聞 曷若爲國復保 死於鋒鏑 永有辭於千秋 今當天地混淪 自強保家之策 亦無過於教子弟勤讀書 讀書之中 必有妙理 今乃明驗者 南竄北走之士子爲名者 雖百艱千急 前津後嶺 必不失尺寸 而無識之人 舍其親 忘其妻 而狂奔疾走 覆轍相尋 君獨不聞不知耶 且利窟害之源 沙店撤罷 恐好 言止於此 勉之勉之

◎ 의병장의 유서遺書

의병장 이강년李康季 씨의 열렬한 충혼忠魂이 한을 품고 하늘로 돌아갔음은 우리 신문에서 이미 다뤘기에 대중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그가 임종 무렵 감옥관에게 종이와 붓을 청구하여 그의 아들 이승재李承宰와 종제 두 사람에게 유서 한 것이 다음과 같다.

장자 승재와 이별하며[대략]

네 아버지는 평생 피어린 충정을 가슴에 품고 임금의 일이라면 죽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뜻을 이루었으니 무슨 한이 있겠나. 절대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수습하여 네 아우를 데리고 옥문 밖에서 날로 기다리다가, 내가 죽은 후에는 3일 내에 흥장凶葬으로 치르고, 고향 산까지 길이 멀어 내 관을 실어다 반장返葬하지 못한다면 이 뜻을 종가에 상세히 알려 대군大君 묘소 근처 국내局內에 한 자리를 빌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네 아버지는 덕이 많아 포부를 다 펴지 못했으니, 비록 여유가 있다 해도 수의와 관곽을 의리상 일반적인 제도에 걸맞게 하는 것은 부당한데, 더구나 네 형제들이 집안에만 얽매이고 의지한다면 갑자기 여관에서 짧은 홀웃마저 어찌 마련할 수 있겠느냐? 다만 내가 구금되어 있을 때 입던 옷은 선산 아래에 묻어주기만 해도 내 마음이 흡족할 것이니 부디 유감이라 여기지 말거라. 나는 나라를 회복하고 보호하기를 고심한지 13년 만에 결국 죽게 되니 원수 갚는 일이 매우 분통하고 한탄스럽다. 형세에는 강약이 있겠지만 의리에는 굴신屈伸이 없으니 군자가 이른바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는 사는 것이 도리어 수치가.”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봐도 한 점 부끄럼 없으니, 너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거라. 아우를 데리고 산골짜기로 들어가 농사지으며 그럭저럭 지내면서, 정수廷秀를 잘 교양하여 집안의 명성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계술繼述하는 방도이니, 힘쓰고 힘써서 네 아버리를 욕되게 하지 말거라. 이 밖에 자질구레한 당부는 번거롭게 말하고 싶지 않다.

무신 6월 4일 포로로 잡혔을 때 지은 부賦 5월 1절

丸子太無情	탄환이란 놈 무척이나 무정하여
踉傷止不行	발목을 다쳐 나아가지 못하네
若中心腹裏	만일 심장이나 배에 맞았다면
毋辱到瑤京	욕되지 않고 저승으로 갔으려면만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부 2절

喪車南渡漢	상여가 남쪽 한강을 건너자
兒子不勝悲	아들이 이루 다 슬퍼 못하네
雖然名尚在	그래도 명성은 아직까지 남았으니
乃家近古稀	우리 집안 근고에도 드물다네

成敗何須說	성패를 어찌 반드시 따질까
從容始踐言	조용히 실천하면 될 것을
丹心培養驗	붉은 충심 배양된 증표이니
感泣聖朝恩	임금의 은혜에 감읍할 뿐

같은 해 6월 10일, 일제 헌병소에 포박되어 있을 때 지은 시 2절

五拾年來判死心	50년 이래로 죽을 마음 결단하여
臨難豈有苟求心	난에 임해 구차히 살길 바라겠는가
盟師再出終難復	다시 군사를 일으켜도 끝내 난을 회복 못하였으니
地下猶餘冒劍心	죽어서도 남아있을 칼날 같은 이 마음

遲遲夏日見人稀	더딘 여름 낮에 사람은 드물고
猾奴隨言覓括機	교활한 놈들 말에 따라 형틀을 찾네
大義尊攘身以守	존왕양이 큰 뜻으로 몸을 지켜
堂堂就死莫云悲	당당히 죽더라도 슬퍼하지 않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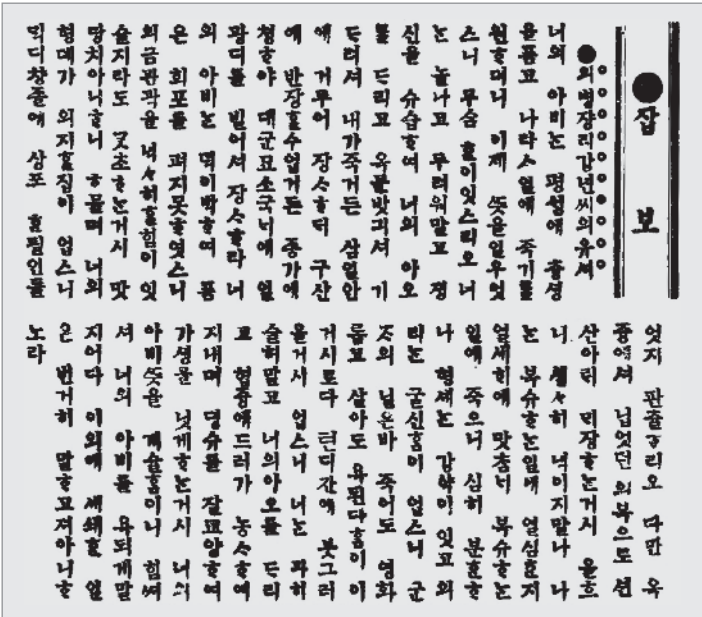
종제從弟와 이별하며[대략]

종형인 내가 덕이 많아 가진 포부를 다 펴지 못하고 끝내 적들에게 사로잡혀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네. 속된 정으로는 슬프다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편안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 인생 100년이라도 누군들 한 번 죽지 않겠나? 마구 뒤엎킨 채 이익과 욕심의 마당에 들락거리 죽은 뒤 이름조차 남지 않은 것 보다는, 나라를 회복하고 보호하려다가 칼날과 화살에 죽어 길이 천추에 이름을 남기는 것과 어찌 같겠나. 오늘날 혼란한 세상에서 스스

잡보

●의병장 이장년씨 유서

너희 아버는 평생에 충성을 품고 나라 일에 죽기를 원하더니 이제 뜻을 이루었으니 무슨 할 일이 있으리오 너는 놀라고 두려워 말고 정신을 수습하여 너의 아우를 데리고 옥문 밖에서 기다려서 내가 죽거든 3일안에 거두어 장사하되 구산에 반장할 수 없거든 종가에 청하여 대군 묘소 국내에 일광지를 빌어서 장사하라 너의 아버는 덕이 박하여 품은 회포를 펴지 못하였으니 의금관곽을 너넉히 할 힘이 있을지라도 갖초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물며 너의 형제가 의지할 집이 없으니 각지 창졸에 상포 한필인들 어찌 관출하리오 다만 옥중에서 입었던 의복으로 선산아래 매장하는 것이 옳으니 섭섭히 여기지 말라 나는 복수하는 일에 열심한지 열세 해에 마침내 복수하는 일에 죽으니 심히 분한하나 형제는 강약이 있고 의리는 굴신함이 없으니 군자의 이른바 죽어도 영화롭고 살아도 욕된 다함이 이것이로다. 천지간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너는 과히 슬퍼 말고 너의 아우를 데리고 협중에 들어가 농사를 하여 지내며 정수를 잘 교양하여 가정을 잇게 하는 것이 너의 아버의 뜻을 계술함이니 힘써서 너의 아버를 욕되게 말지어다. 이외에 세세한 일은 번거히 말하고져 아니하노라



의병장 이강년씨의 종제를 영결한 글

중형은 덕이 박하여 품은 뜻을 펴지 못하고 마침내 잡힌바 되어 이제 장차 죽음을 받으니 시속인정으로 말하면 슬픈일이라 할듯하나 나의 마음에는 탄탄 무애하니 인생 100년에 누가 한번 죽음이 없으리오 이욕에 분주하다가 죽은 후에 아무 이름도 없는 것 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져 하다가 칼아래 죽어서 천추에 이름을 유전하는 것이 어떠하뇨 이제 천지가 혼몽할 때를 당하여 자강하고 보가하는 계획은 자제를 가르쳐 근실히 글을 읽게 하는데 있으니 글을 읽는 가운데 묘리가 있는지라 이제 남북으로 쫓겨다니는 선비위명한 자들은 비록 백난중이라도 도리를 잃치아니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어버이를 버리며 처자를 잇고 왕래하며 복멸함이 연속하는 것을 그대는 듣고 보지 못하느뇨 또 릿구영은 해의 근원이니 사기점은 철파하는 것이 좋을 듯 하도다 말이 이뿐이니 힘쓸지어다.

▲의병장 이강년씨의 종
주영은 덕이 박하여 품은 뜻
를 펴지 못하고 마침내 잡
힌바 되어 이제 장차 죽
음을 받으니 시속인정으로
말하면 슬픈일이라 할듯
하나 나의 마음에는 탄탄
무애하니 인생 100년에
누가 한번 죽음이 없으리
오 이욕에 분주하다가 죽
은 후에 아무 이름도 없는
것 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져 하다가 칼
아래 죽어서 천추에 이름
을 유전하는 것이 어떠하
뇨 이제 천지가 혼몽할 때
를 당하여 자강하고 보가
하는 계획은 자제를 가르
쳐 근실히 글을 읽게 하
는데 있으니 글을 읽는 가
운데 묘리가 있는지라 이
제 남북으로 쫓겨다니는
선비위명한 자들은 비록
백난중이라도 도리를 잃
치아니하고 무식한 사람
들은 어버이를 버리며 처
자를 잇고 왕래하며 복멸
함이 연속하는 것을 그대
는 듣고 보지 못하느뇨 또
릿구영은 해의 근원이니
사기점은 철파하는 것이
있을지니 힘쓸지어다

공립신보

1908년 11월 11일자

의장사형

의병장 이강년씨는 10월 13일에 종로감옥서에서 사형이 집행하였더니 군의 영혼의백은
흰날이 같이 빛나리로다

의병전사

10월 7일에 일병들이 경상도 부근에서 의병 40명과 접전하여 22명을 살육하였는데 일병
3명과 한인등사 1명은 의병의 손에 죽었다더라

● 의장사형 의병의장 이강년씨는 十月十三日에 종로감옥서에서 사형을 집행하였더니 군의 영혼의 백은 흰날이 같이 빛나리로다

● 의병전사 十月七日에 일병들이 경상도 부근에서 의병 40명과 접전하여 22명을 살육하였는데 일병 3명과 한인등사 1명은 의병의 손에 죽었다더라

공립신보

1908년 12월 9일자

의리있는 압퇴

감옥서에서 의병대장 이강년 허위 양씨를 무리하게 처형하는 것을 보고 압퇴 거황하든 모 양씨가 비분 강개하여 그 모자를 벗어 찢어버리고 자퇴하였다더라

● 의리있는 압퇴
감옥서에서 의병대장 이강년 허위
양씨를 무리하게 처형하는 것을 보
고 압퇴 거황하든 모 양씨가 비분
강개하여 그 모자를 벗어 찢어버리
고 자퇴하였다더라

공립신보

1908년 12월 30일자

송구년 送舊年

五. 이강년 허위 양씨는 5조약과 7조약을 무시하고 국권을 회복코저하여 의병을 들어 일 병을 치다가 강약중과 과부동 함으로 종시 일병에게 피급하여 수삭 옥하였다가 처교를 당하였으며



送舊年

공립신보 癸卯年十一月三十日 이니 미구가 리 양을 일병 양씨와 함께 다 일 우는 날이라 가두정부와 감사회에서 과거 일년 동안의 사업을 도시 마감한 날이라 하여 이 표류한 종교의 이 년 동안 양당 하의 관직을 신사가 다룬다고 보다 더욱 간절함도다

부울 잡고 우리 국가 사건의 일년 역사를 기록하자고 하는 의회 부다 비국 참관이 한도다 세 시한 일 년 다 될 기 여 려고 나니 가장 큰 장을 맡았던 의

이 일 년의 산양으로 한두 의 부고 한 이 도와 외부로 일 년의 개도 이후 고 두 정부고 문의 되어 정부를 일 년의 개도 전 미 국인 스텔 한 이 기 상 하 양 의 노 방 아 공 신 신 한 의

제적 한 의 고 인 일 년의 만 양 유 현 은 전 가 리 우 모 보 보 한 양 유 현 의 고 또 두 무 리 한 양 노 한 두 인 의 비 양 유 현 의 고 노 스텔 한 의 의 음

중으로 전 전 의 고 의 유 의 사 양 인 한 년 인 양 유 현 의 고 또 두 무 리 한 양 노 한 두 인 의 비 양 유 현 의 고 노 스텔 한 의 의 음

씨는 일전 상동지 관소에서 대이 등고 상동에서 처났으며 一 이후로 일 년의 참관 본국 정 부인 이 일 년의 견양을 따오라 고 사한 지 토레를 안포하고 외 양에서 발원한 본보와 의 동 보와 함성보와 허모 보를 압수 국내 단련을 견행동에서 있을 것을 함국정에서 발원한 영구인 관설서의 의 일 년도 수차 일 수 불양하여 원사지 관서지 잇섯스 며

二 한국에 이 일 관 폐되던 일 년 일 년의 처서 화사라 처서 화사는 일본 전총리대 신계 회방이 그 한 국을 벌일 할야 자국 식민지 불만 들게 하므로 상년에 소위 처서 화

사를 받되 할바 우를 두고 나 할 잘 한 국 정부와 일 년의 처서 화사 실 시 처고 후게 처서 화사 지 아니 하고 들 으려 함을 부활하여 속히 설립 하 고 일 년 빈민 수 단 방법을 이 려 하 야 양 상 상 립 왕 산 이 회 의 권을 양

의 고 또 두 무 리 한 양 노 한 두 인 의 비 양 유 현 의 고 노 스텔 한 의 의 음 을 리 한 인이 한 국의 사 립 권을 장 약 할 라고 뒤 실 원과 강 소 원과 디 방 전 관 소를 설립 하 고 일 년 빈민 관

을 리 한 인이 한 국의 사 립 권을 장 약 할 라고 뒤 실 원과 강 소 원과 디 방 전 관 소를 설립 하 고 일 년 빈민 관 을 리 한 인이 한 국의 사 립 권을 장 약 할 라고 뒤 실 원과 강 소 원과 디 방 전 관 소를 설립 하 고 일 년 빈민 관

을 리 한 인이 한 국의 사 립 권을 장 약 할 라고 뒤 실 원과 강 소 원과 디 방 전 관 소를 설립 하 고 일 년 빈민 관 을 리 한 인이 한 국의 사 립 권을 장 약 할 라고 뒤 실 원과 강 소 원과 디 방 전 관 소를 설립 하 고 일 년 빈민 관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9년 2월 4일자

지방소식 地方消息

▲ 再昨年政變 以後로 忠淸北道에는 盧炳大 趙用根 이강년李康季 諸氏가 義膽을 逞하야 山嶽重疊의 地理를 利用하야 壹時 擾亂을 起하였더니 昨年初에 至하여는 其 勢力이 衰退한지라 작년 6월 이후로는 의병이 혹 7,8명 혹 2,30명씩 出몰하는데 6월에는 12회, 7월에는 5회, 8월에는 6회, 9월에는 5회, 10월에는 10회, 11월에는 7회, 12월에는 9회라더라

忠淸北道 消息

▲ 再昨年政變以後로 忠淸北道에 盧炳大 趙用根 李康季 諸氏가 義膽을 逞하야 山嶽重疊의 地理를 利用하야 壹時 擾亂을 起하였더니 昨年初에 至하여는 其 勢力이 衰退한지라 작년 6월 이후로는 의병이 혹 7,8명 혹 2,30명씩 出몰하는데 6월에는 12회, 7월에는 5회, 8월에는 6회, 9월에는 5회, 10월에는 10회, 11월에는 7회, 12월에는 9회라더라

지방정형

▲ 재작년 정부변경이래로 충청북도에는 노병대 ○○○ 이강년 제씨가 산협 ○○○ 곳에 위치를 정하고 일시에 의병을 일으켰으며 작년 봄에 이르러는 그 세력이 전보다 쇠하였으나 작년 6월 이후로 의병이 혹 7,8명 혹 2,30명씩 출몰하는데 6월에는 12번이요 7월에는 9번이요 8월에는 6번이요 9월에는 5번이요 10월에는 6번이요 11월에는 7번이요 12월에는 9번이라하고

지 방 정 형

▲ 재작년 정부변경이래로 충청북도에는 노병대 이강년 제씨가 산협 ○○○ 곳에 위치를 정하고 일시에 의병을 일으켰으며 작년 봄에 이르러는 그 세력이 전보다 쇠하였으나 작년 6월 이후로 의병이 혹 7,8명 혹 2,30명씩 출몰하는데 6월에는 12번이요 7월에는 9번이요 8월에는 6번이요 9월에는 5번이요 10월에는 6번이요 11월에는 7번이요 12월에는 9번이라하고

의장피착

이해수씨와 이명상씨의 종사 백락현씨가本月 5일에 불행이 일헌병에게 잡혔는데 백락현씨는 재작년 8월에 의병장 이증봉씨의 종사가 되었고 그 후에는 이강년씨 의진에 들어가서 이해수씨와 같이 행동하였으며 작년 1월부터 의병장 이명상 백남규씨 진에 들어가서 동지자를 소모하고 전라남도도 횡횡하던 자이라더라

意 의장피착 의병장 리희수
 씨와 리명상씨의 종사 백
 락현씨가本月오일에 불행
 이 일헌병에게 잡혔는데 백
 락현씨는 재작년팔월에 의
 병장 리증봉씨의 종사가 되
 었고 그후에는 리강년씨의
 진에 들어가서 리희수씨와
 같이 행동하였으며 작년 일
 월부터 의장 리명상 백남규
 씨진에 들어가서 동지자들
 소모하고 전라남도도 횡횡
 하던 자라더라

황성신문

1909년 2월 26일자

폭괴체포 暴魁逮捕

本月 六日에 忠州守備隊와 憲兵分遣所가 協同하여 暴魁首 李海秀、李明相、白樂天、等を 逮捕하였는데 白樂天은 再昨年 八月 上旬에 其首魁李重鳳에게 附從하였다가 其後 이강 年李康季의 陣下에 入하여 李海秀와 行動하다가 昨年 一月 三十日에 更히 李明相과 白南奎에게 附從하여 同地를 句集하고 軍需品을 徵收한者라더라

暴魁逮捕 本月六日에 忠州守備
隊와 憲兵分遣所가 協同하여 暴魁首
李海秀、李明相、白樂天、等を 逮捕
하였는데 白樂天은 再昨年 八月 上旬
에 其首魁李重鳳에게 附從하였다가
其後 李康季의 陣下에 入하여 李海秀
와 行動하다가 昨年 一月 二十日에 更
히 李明相과 白南奎에게 附從하여 同
地를 句集하고 軍需品을 徵收한者라
더라

의병장 피착

의병이 일어난 후에 충청북도 각지로 횡횡하던 이강년씨의 종사관 김규항씨는 나이 28세인데 총명이 과인한터이라 이씨가 잡혀 죽은 후로 비분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복수코저하여 작년 11월에 서울로 와서 무슨 일을 탐정하더니 동부경찰서 형사 순사 어득진 김연순 등이 20원 상금을 탐하여 수진동 등지에서 잡혀 그 서에서 신문후에 지방재판소로 넘겼다더라

●의병장 피착 의병이 니려
 난후에 충청북도 각지로 횡
 횡하던 이강년씨의 종사관
 김규항씨는 나이 이십팔세
 인데 총명이 과인한터이라
 이씨가 잡혀죽은후로 비분
 호분을 품고 열심히 복수로
 슈코저하여 작년심월월에 서
 울노와서 무슨일을 탐정하
 더니 동부경찰서 형사 순사
 어득진 김연순등이 이십원
 상금을 탐하여 수진동등지
 에서 잡아 그 서에서 신문후
 후에 지방재판소로 넘겼다
 라

이씨계적

의병장 이강년씨가 죽은 후에 해씨의 아들 모씨가 자기 부친의 시체를 운구하여 시 고을에 장사하고 자기 부친의 뜻을 계적코져하여 자기 부친의 전일 부하병졸을 거느리고 또 의병을 많이 모집하는 중이라더라

● 이씨계적 의병대장 이강
년씨가 죽은 후에 해씨의 아
들 모씨가 자기 부친의 시
체를 운구하여 시 고을에 장
사하고 자기 부친의 뜻을 계
적코져하여 자기 부친의 전
일 부하병졸을 거느리고 또
의병을 많이 모집하는 중이라
더라

이씨피포 李氏被捕

數日前에 慶北 尙州郡에서 太田駐在 日憲兵에게 被捕된 暴徒首領 李麟榮氏는 十七日에 太田憲兵分遣所長 中尉, 兵 一名으로 當地 憲兵分隊 本部로 護送하였다는데 氏는 本來 驢州의 大儒鄉黨에서 重視할 뿐 아니라 憂國之士로 自任하여 恒常 國事로 東奔西走함으로 曾往 乙未年에도 首先倡起한 事가 有하더니 昨年 政變以來로 許蔭, 이강년李康季, 李殷瓚 等を 指揮命令하였으며 昨春에는 諸將을 會集하고 一次大舉하여 京城을 襲擊하기로 策하고 楊州에서 屢次 密議를 行하였으나 其時에 親喪을 遭함으로 慶北聞慶으로 歸하여 機會를 遂失하고 喪中에 各處로 來往하다가 天命의 盡함을 因하여 今番 尙州 太田憲兵隊에게 捕捉되었는데 氏는 被捕한 後에도 言語動作이 泰然하다더라

李氏被捕 數日前에 慶北尙州郡에서 太田駐在 日憲兵에게 被捕된 暴徒首領 李麟榮氏는 十七日에 太田憲兵分遣所長 中尉, 兵 一名으로 當地 憲兵分隊 本部로 護送하였다는데 氏는 本來 驢州의 大儒鄉黨에서 重視할 뿐 아니라 憂國之士로 自任하여 恒常 國事로 東奔西走함으로 曾往 乙未年에도 首先倡起한 事가 有하더니 昨年 政變以來로 許蔭, 李康季, 李殷瓚 等を 指揮命令하였는며 昨春에는 諸將을 會集하고 一次大舉하여 京城을 襲擊하기로 策하고 楊州에서 屢次 密議를 行하였는나 其時에 親喪을 遭함으로 慶北聞慶으로 歸하여 機會를 遂失하고 喪中에 各處로 來往하다가 天命의 盡함을 因하여 今番 尙州 太田憲兵隊에게 捕捉되었는디 氏는 被捕한 後에도 言語動作이 泰然하다더라

大韓每日申報(국한문판)

1909년 7월 23일

蚊虻驅除 前號 續

(彼報)今夫我國은 日本保護에 在하니 마땅히 能保護國의 補導를 受라여 他日進歩를 圖할 따름이라 云云

南山老木에 烏鳥가 巢를 構하고 雛를 育하더니 壹日은 北山鷗효가 烏鳥를 說하여 曰我が 爾室을 守護하면 鷗鳥가 不侵할 것이시니 爾는 但히 爾雛의 飼養物을 攫取來하라 烏鳥가 其說을 依하여 從外來하니 其雛壹首가 無한지라 鷗효를 疑한대 효曰我が 爾室을 護하는 大 爾子를 豈食하리오 爾가 我를 不信커던 但히 後日을 看하라 烏가 其言을 信하였더니 再回에 二子가 無하고 三回에 三子가 無하여 畢竟恩斯勤斯히 育한 子를 盡數히 效腹中에 葬하였더라 烏鳥의 所不覺을 蚊虻이 豈知하리오 今日韓天地에 坐하여 尙히 保護를 謳歌하며 他日를 遲待함은 彼效鳥咽門에 跨하여 雲霄高翔을 夢함이로다

(彼報)我國民이 每日報籠絡術中에 陷하여 於是에 許위 이강년李康季 閔肯鎬 등이 反旗를 豎하여 國民生命의 慘禍를 招하였다 云云

許李閔諸氏는 韓國의 忠義男子라 韓國을 爲하여신을 생하며 韓民을 爲하여 혈을 류하였거늘 爾가 彼를 反旗라 稱할진대 爾는 丁寧韓人이 아닌 줄은 不言自明이로다 然而爾輩筆下에 往往我國字를 露함은 何也오 未知케라 爾所謂我 果然日本을 謂함이나 抑或韓國을 謂함이나 만일 韓國으로 看做하면 到底히 說話가 不成하니 自後는 日本字를 直書하여 眞正한 韓人의 耳目을 眩치 말지어다 [未完]

蚊虻驅除 前號 續

(彼報)今夫我國은 日本保護에 在하니 마땅히 能保護國의 補導를 受라여 他日進歩를 圖할 따름이라 云云

南山老木에 烏鳥가 巢를 構하고 雛를 育하더니 壹日은 北山鷗효가 烏鳥를 說하여 曰我が 爾室을 守護하면 鷗鳥가 不侵할 것이시니 爾는 但히 爾雛의 飼養物을 攫取來하라 烏鳥가 其說을 依하여 從外來하니 其雛壹首가 無한지라 鷗효를 疑한대 효曰我が 爾室을 護하는 大 爾子를 豈食하리오 爾가 我를 不信커던 但히 後日을 看하라 烏가 其言을 信하였더니 再回에 二子가 無하고 三回에 三子가 無하여 畢竟恩斯勤斯히 育한 子를 盡數히 效腹中에 葬하였더라 烏鳥의 所不覺을 蚊虻이 豈知하리오 今日韓天地에 坐하여 尙히 保護를 謳歌하며 他日를 遲待함은 彼效鳥咽門에 跨하여 雲霄高翔을 夢함이로다

(彼報)我國民이 每日報籠絡術中에 陷하여 於是에 許위 이강년李康季 閔肯鎬 등이 反旗를 豎하여 國民生命의 慘禍를 招하였다 云云

許李閔諸氏는 韓國의 忠義男子라 韓國을 爲하여신을 생하며 韓民을 爲하여 血을 류하였거늘 爾가 彼를 反旗라 稱할진대 爾는 丁寧韓人이 아닌 줄은 不言自明이로다 然而爾輩筆下에 往往我國字를 露함은 何也오 未知케라 爾所謂我 果然日本을 謂함이나 抑或韓國을 謂함이나 만일 韓國으로 看做하면 到底히 說話가 不成하니 自後는 日本字를 直書하여 眞正한 韓人의 耳目을 眩치 말지어다 [未完]

모기[蚊]·등에[虻]를 몰아내자 [전 호에 이어서]

저들의 보도 내용 :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보호 아래 있으니 마땅히 보호국의 보조와 인도를 받아서 앞으로의 진보를 도모할 따름이다.”등등의 말에 대하여,
남산의 노복에 까마귀가 등지를 틀고 새끼를 길렀는데, 한 날은 북산의 솔개가 까마귀를 설득하며, “내가 네 집을 지켜주면 다른 맹금류 새들이 침범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다만 네 새끼의 먹이를 물어다 오기만 해라.”라고 하여, 까마귀가 그 말에 의해 출타했다가 돌아오니 새끼 한 마리가 없어졌는지라, 솔개를 의심하자 솔개는, “내가 네 집을 지키는데 네 새끼를 어찌 잡아먹었겠는가?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다만 뒷날에 있을 일을 지켜 보아라.”라고 하자 까마귀는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두 번째 나갔다 돌아오면 두 번째 새끼가 사라지고 세 번째 나갔다 돌아오면 세 번째 새끼가 사라져서 결국 사랑으로 애써 키운 새끼를 모조리 솔개의 뱃속에다 장사 치르게 되었다. 까마귀가 깨닫지 못한 것을 모기나 등에가 어찌 알겠는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천지에 앉아서 여전히 보호한다고 노래하며 다른 날만 서서히 기다리는 것은, 저 솔개의 목구멍에 걸터앉아 하늘 높이 나는 것만 꿈꾸는 것이다.

저들의 보도 내용 : “우리 국민이 매일 술수에 농락당한다는 정보에 매몰되어 이극고 허위·이강년·민공호 등이 반기를 세워 국민의 생명에 참화를 초래하였다.”등등의 말에 대하여,

허위·이강년·민공호 제씨들은 우리 한국의 충의로운 남자들이다. 한국을 위하여 마음을 내었고 한국을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네가 저들을 ‘반기를 들었다’고 일컫는 것은 네가 정녕 한국인이 아니라는 점을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무리들의 펜대 아래에 자주 “아국我國”이라는 글자를 드러내는 것은 어찌서인가? 알지 못하겠거니와, 네가 “우리我”라 이르는 것은 과연 일본을 이르는 것인가? 아니면 혹여 한국을 이르는 것인가? 만일 한국으로 간주하자면 도저히 말이 안 되니, 이후부터는 “일본”이라는 글자로 바로 써서 진정한 한국인들의 이목을 현혹시키지 말라.[미완未完]

시사평론

국한문판과 내용 동일

▲시사평론

(속)

참모계 말하기를 이제 우
 마나라에 일본국 보호령
 해잇는즉 맛당히 보호국
 과 인도홍콩맛아 타형의
 진보기틀 도모할새름아라
 수잇스니

남산보육에 홍석치가 집을
 짓고 석기불처논데 후로는
 부산소리가 사치를 달려
 마칠후에 내가 너의집을 지
 회면 독슈리가 침포처못할
 거서니 너는 나가서 너의
 석기먹일 물건만 엮어오라
 남산보로 사치가 그말유듯
 고 맛그로나맛다가 드러온
 죽 재석기후나가 일본자라
 소리를 의심할터 소리의
 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집을
 보호시켜 엮지너의 석기를
 장하의소리로 네가나를 밋
 지못수거든 네후를 다서보
 라말소로 갖다가 쓰이말을
 밋엇더니 두번나맛다오면
 석기가 업세지요 세번갓다
 으면 세석기가 업세져서 필
 경 근포드러 기문석기를
 수히 소리의비속에 너헛다라

대사치의 서닷지못바를 모
 괴로호 너희가 엮지말너오
 오로날 한국던디에 안져서
 보호유밋고 후년들 기드말
 은 소기 목구녕에 안져
 서 후일애 장생기틀 기
 드라논새와 엮안어도다

참모에 말하기를 우리나
 라인만이 제일선보의 동
 락을누게교종대 짜집으로
 허위 리간년 민공호등이
 반역할뜻을창의후야 국
 민일명의 참혹변화를 일
 우웠다엮엮스니

허리민삼씨도 한국의 총의
 남조이라 한국을 위하야 신
 무실하고 한민을 위하야 철
 문유가엮엮거날 너희가 그드
 러반역이라할진히 너희는 영
 네한인이 사년들은 가하알
 겠도나 그러나 너희말의 흥
 상아국의라호은 무슴뜻의노
 아지못게라 너희소위 아스
 조가 과연 일본을 그른침
 인가 후 한국을 널음인가
 만일 한국으로불진디 도다
 히 이불생설아니 아후브러
 논 곳 일본스조물써서 한
 인의 이목을 현혹케지말
 지어다 (미완)

의병총대장이인영씨의 약사 義兵總大將李麟榮氏의 略史

(日紙를 據하여 譯出함)

李麟榮씨는 京畿道驪州北面橋谷洞에서 出生한 人士라 幼時부터 儒門에 入하여 弱冠에 孔孟書의 蘊奧를 通하고 早히 壹家학을 成하매 遠近來學者가 甚衆하더니 後에 事故를 因하여 慶北聞慶郡에 移하니라

既而 乙未淸日의 戰을 經하여 明成皇后 凶害를 遇하시고 日本의 勢力이 全國을 壓하거늘 씨가 이에 時事를 哭하고 同志 柳麟錫 이강년李康季等과 相謀하여 義旗를 舉하고 日本을 抗하다가 既而 丙申以後에 時局이 稍平하매 翻然히 建敵에 歸하여 耕田鑿井으로 自樂하더라

俄日戰訖에 韓國이 鯨戰오塚의 災를 蒙하여 所謂乙巳新協約이 締結되야 四千載故國이 一朝에 他人의 保護下에 墮入하매 壹般人心이 潮沸하여 義旗를 舉한 者 所在蜂起하는 大 就中江原道倡義者 李殷贊 李求載 兩씨가 日本을 攘斥하고 國勢를 挽回코자 하여 義衆二千을 召集하고 共히 李麟榮씨를 戴하여 大將 삼기로 可決하고 聞慶에 到하니 씨는 政히 該地에 蟄居하여 亡國의 淚를 灑하고 蓬蘆에서 彷徨하더라

李殷贊씨가 麾下의 禮를 執하고 前에 進하여 慨然히 時事를 陳하고 씨에게 總大將됨을 乞하니 씨도 倡義의 志를 抱한지 已久로대 但其父가 病床에 伏하여 起居를 人에게 依함으로 씨가 家庭을 忍離치 못할 情理라 故로 씨가 此由로 李殷贊씨에게 回答한즉 李殷贊씨曰 此天崩地覆의 日을 當하여 國家事急하고 父子恩輕이니 어찌 私事로써 公事를 後하리오 하고 씨의 家에 四日을 留宿하며 懇告함을 不已한대 씨가 遂慨然히 承諾하니라 씨가 原州에 出陳하여 關東倡義大將의 旗를 揭하고 義兵을 募集할때 檄文을 製하여 四方에 飛하니 檄文이 字字句句마다 慷慨悲憤의 調를 帶하여 遠近應募하는 者 日로 衆하더라 (未完)

신한민보

1919년 10월 2일자

이강년휘하 남은 군사

그전 의병대장으로 순절하신 이강년의사 휘하에 있던 의병 100여명은 이강년의사가 순의하신 후에 산속에 들어가 숨었더니 8월 상순에 다시 남방 모처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며 일인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하다 그 소문이 자연 루설되어 그 근방 각처에서 무수한 의병이 벌일 듯한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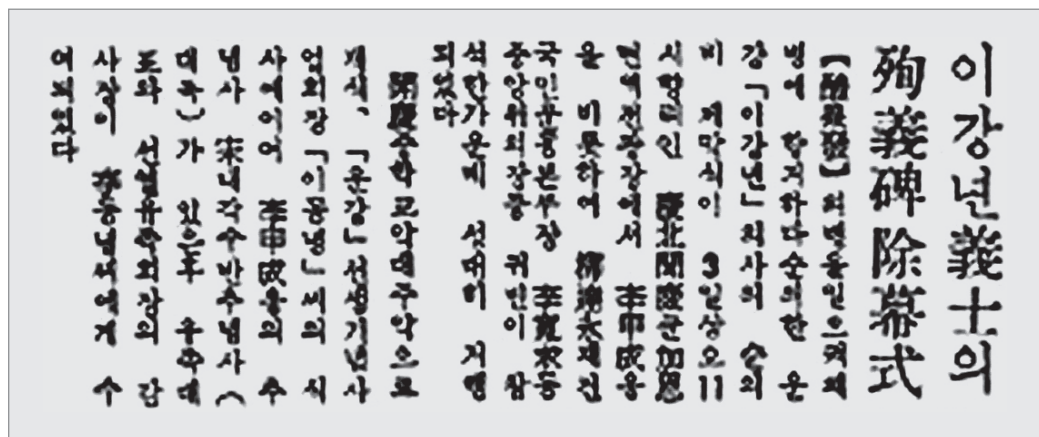
그전 의병대장으로 순절하신 이강년 휘하에 있던 의병 100여명은 이강년의사가 순의하신 후에 산속에 들어가 숨었더니 8월 상순에 다시 남방 모처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며 일인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하다 그 소문이 자연 루설되어 그 근방 각처에서 무수한 의병이 벌일 듯한대라

동아일보

1962년 6월 4일자

이강년 義士의 殉義碑除幕式

[醴泉發] 의병을 일으켜 왜병에 항거하다 순의한 운강 「이강년」 의사의 순의비 제막식이 3일 상오 11시 향리인 경북 문경군 가은면 역전광장에서 이갑성옹을 비롯하여 유달영 재건국민운동본부장 이관구 동 중앙위의장 등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문경중학교 악대 주악으로 개식, 「운강」 선생기념사업회장 「이동영」 씨의 식사에 이어 이갑성옹의 추념사 송내각수반 추념사(대독) 있는 후 유족대표와 선열유족회장의 감사장이 이동영씨에게 수여되었다.



동아일보

1964년 5월 16일자

역사를 빛낸 민족의 사표

중앙청↔남대문 녹지대에 37분의 조상 세워

중앙청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녹지대에 삼국시대로부터 최근에 걸쳐 우리의 역사를 빛낸 인물들의 입상立像과 좌상坐像이 지난 10일부터 차례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16일까지 완성될 이 계획사업은 서울대학교미술대학 이화대학 홍익대학 서라벌예술대학 등 4개 대학 조각과 학생들이 문교부로부터 재료비만 받아 3월 21일부터 착수한 것이다.

위 시대의 분으로는 김유신 을지문덕 세종대왕, 근세의 분으로는 손병희 유관순 이상재 그리고 이즈음의 분으로는 안창호 김구씨 등 37위의 민족적 사표들의 입상과 좌상이 각각 독특한 의상으로 만들어 세워지고 있다.

이것은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선현에 대한 추모의 정신을 한층 함양하는 일로, 국회의 후원도 받고 있다.

각 학교 따로 나누어 만든 선현들의 입상과 좌상을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왕건·강감찬·의총·윤관·문익점·최무선·허준·사명당·
최익현·안창호·김정호·김홍도

◇ 이화대학교 미술대학- 김춘추·유관순·정몽주·정약용·이순신·안중근·윤봉길·
김마리아

◇ 서라벌예술대학- 을지문덕·김유신·세종대왕·신사임당·권율

◇ 홍익대학교- 원효대사·이퇴계·이율곡·김정호·전봉준·이강년·허위·손병희·
김좌진·김구·이상재·민영환 <사진 : 중앙청앞거리에 세워진 조상>

역사를 빛낸 민족의 사표

중앙청... 남대문 녹지대에
37분의 조상 세 위

중앙청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녹지대에 신국사대로부터 최근에 걸쳐 우리의 역사로써 민족들의 일상(空靈)과 피상(坐像)이 지난 10일부터 차례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16일까지 완공될 예정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이화대학 동덕여대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4대학 조각 학생들의 공로로부터 제로이단반이 3월21일부터 착수한 것이다.

최서대의 분으로는 김유신·윤지문덕·세종대왕·근세최존

으로는 손영희·유관순·이상재 그리고 이즈음의 분으로는 안창호·김구·이승만 37위의 민족 사표들의 입상과 화상이 각각 특색있는 피상으로 만들어 세워지고있다.

이것은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선형에 대한 추모의 정신을 한층 함양하는 일로, 국외에 우편도 받고있다. 각학교별로 나누어만든 선형들의 입상과 화상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황진·강감감·최수·윤복·윤익·최우선·이승·사명달·최익현·안창호·김정호·김홍도
- ◇이화대학교 미술대학—김관수·유관순·정봉주·정약술·이유신·안승근·윤복길·김아리아
- ◇동덕여대학교 미술대학—윤지문덕·김유신·세종대왕·신사임당·천후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한효대사·이희재·이윤복·김정호·전봉준·이강년·허위·손영희·김화진·김구·이상재·민영환. <사건·중앙청앞지리대세워진조상>



신생년차지
빵 배급
서울 경동국민학교
교사 이 등 수

오르름 번주며 학교에서 한 반에 20여 명은 30여명 명배급이란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만도막. 오세 수업이 시작되면 피와 같이 땅 안동이를 팔고 여울일 여울일 물이 가아라는데 명그릇을 팔고 물어갔을 때 아동의 시선이 일제히 명그릇에 합치면 이상야릇한 기분이다.

3주일이 되면 술취를 부르고 나서 땅을 운전대로 주게 되는데 이들을 몰리운 아동은 부디 나세 나와서 명그릇을 내놓고 오한다. 이렇게 되면 『오르지마』 하는 소리가 떨어지지 마면, 땅을 못 파는 아동이 명하니 쳐다보는 것이 안됐지만 『백을려요』 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땅을 일제 댈머니 백상 속에 넣었다가 얼은 머리 한입 잔막 때어 들고 물이 데어여아일고 있으니 공부로 안될뿐 아니라 몸상사나와서 『니 나와, 땅도 가져고 나와요. 어허사만 보는 일제적 찍어지』 한다.

침안되고 속은한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이렇게 수업시간 중에 땅을 먹게되는 것은 아동의 잘못이 아니다. 3주제 수업을 하면 땅을 먹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다가는 수업시간을 정장러운 때를 보니 명적는시간이 없다. 그러니 아동들이 수업시간에 우물거리는 것은

아까부터 고사리 같이 조그만 손을 물어봐 보고 있는 육이를 보듯말아가 웃었다.

—육아, 손은의 그렇게 물어봐 보았었니?』
—참 이상해!』
육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손들은 몇 때문에 물어보는지야?』
차라면 자주 침이야 퍼구 귀찮잖아?』
—그럼 육이는 손들이 없었으면 좋겠지?』 하고 말하는 로그인 육이의 손을 강으며 말하였다.
—육아, 손들이 가라는 것은 귀찮지만 손들이 없으면 물건을 죽을 때 힘들 수가 없거든.』
—그럼 세 팔만만 나면 가만히 있게 만들자 세 손들은 자주 가져가 만들었어?』
—손들이 가져가 많으면 일할 때 마다 팔아서 나중에는 손들이 아주 없어지지?』 육아, 육아 육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탄신 567돌
15일 행사 가져
15일은 세종대왕 탄신 567돌입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5일에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며, 경주함기, 기념달상 등서 행사를 가졌어.



조선일보

1988년 4월 21일자

한말 義兵編制 밝힌 자료발견

의병장 李康季 친필 작성 「束伍作隊圖」

主將 → 營司 → 哨長 → 旗統 → 隊長의 5개 직제

한말 義兵편제를 그림으로 밝힌 희귀한 독립운동관련 자료가 발견됐다. 의병조직은 主將을 정점으로 하고 밑으로 營司 → 哨長 → 旗統 → 隊長 등의 5개 직제를 갖고 가장 하부조직인 隊는 오늘날 군대의 分隊나 班과 비슷한 12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속오작대도束伍作隊圖」라는 이름이 붙은 이 조직표는 1896년부터 1908년까지 충청 강원 경북 경기지방에서 활약했던 의병장 雲岡 李康季이 친필로 작성한 것. 雲岡 묘비 재건립 사업을 추진해온 그의 증손 李麟揆씨⁶⁰가 최근 인척 李廷麟씨⁷³ 상주군 화북면 장암리 집에서 발견 공개했다. 李씨가 공개한 雲岡 의병관계 자료들은 「속오작대도」를 포함, 의병모집 격문 옥중시 편지 등 모두 17점이다.

가로 161.5cm, 세로 16.5cm 크기의 한지에 쓰여진 「속오작대도」는 의병조직도와 함께 군대행진법, 진격-후퇴요령 등을 수록, 의병사의 새로운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主將 밑에는 5명의 營司가 있으며, 營司는 다시 5명의 哨長을 거느린다. 哨長 밑에는 3명의 旗統이 있고, 旗統은 또 3명의 隊長을 지휘했다. 隊長 밑에는 火兵 1명을 포함한 11명의 병사가 있었다. 1개 司의 병력은 561명. 지금의 大隊와 비슷한 규모이다.

「속오작대도」는 『兵은 隊를 위해 죽고, 隊는 旗를 위해 죽으며 旗는 哨를 위해 죽고, 哨는 司를 위해 죽는다. 司는 義를 위해 죽는데, 義가 서면 막강한 군대가 된다』며, 義理를 중시하는 의병조직의 이념을 밝히고 있다.

행군 및 진격 요령 등에 대해선 『북을 한번 치면 일어나고, 두 번 치면 앞으로 나아가며, 징을 한번 치면 중지하고 징을 두 번 치면 뒤로 물러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5년 10월 3일자

보훈처 「10월의 독립운동가」 李康季先生 선정

국가보훈처는 2일 「10월의 독립운동가」로 구한말 경북 강원 충청일대에서 무장항일투쟁을 벌이다 일경日警에 체포돼 순국한 운강 이강년李康季 선생1858~1908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894년 동학군에 투신했던李先生은 이듬해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등으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고향인 문경에서 거의, 일본군경과 항일투쟁을 벌였다.

선생은 특히 1896년 柳麟錫선생이 체천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유격장이되 수안보의 일본군 병참을 공격했고 1907년 을사늑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들과 함께 일군日軍을 공격 체천에서 500여명을 섬멸하기도 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지난 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李康季先生

「10월의 독립운동가」 李康季先生 선정

보훈처

국가보훈처
2일 「10월의 독립운동가」로 구한말 경북 강원 충청일대에서 무장항일투쟁을 벌이다 일경日警에 체포돼 순국한 운강 이강년李康季 선생1858~1908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894년 동학군에 투신했던李先生은 이듬해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등으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고향인 문경에서 거의, 일본군경과 항일투쟁을 벌였다.

선생은 특히 1896년 柳麟錫선생이 체천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유격장이되 수안보의 일본군 병참을 공격했고 1907년 을사늑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들과 함께 일군日軍을 공격 체천에서 500여명을 섬멸하기도 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지난 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